

에 대륙 만주의 각지를 시찰하여 청조(淸朝) 문화에 깊은 이해를 느낀데 붙인 것이다. 항상 동분서주하는 정치생활 중에서 짧은 여가를 타서 화필을 들어 그리는 남화는 벌써 평범한 화가의 수준을 훨씬 돌파하였으며 문학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평론하는 총독은 마치 청년다운 생기와 정열에 두 뺨이 홍조된다. ‘풍류장군’이라는 이름은 비로소 우리들의 소기 총독을 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총독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엄하기 추상과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기 봄 하늘과 같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은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고 비판을 받기에 주저치 않는다. 일찍이 관동군 참모장으로 있을 때 어떤 연희 석상에서 전기 우에다(國境子)를 만나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백두산절을 읊었더니 “그것이 다 노래입니까?”하고 야유를 당하였다. 이에 총독은 즉시 국경자의 제자가 되어 기어 이 지금과 같이 훌륭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었거니와 여기에도 무엇이든지 철저히 완성시키려 하는 정열과 누구에게라도 자기의 부족함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겸손한 총독의 성정이 눈에 보는 듯이 나타나 있다. 총독의 술을 사랑함의 지극함도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실이다. 양주, 중국주, 일본주 할 것 없이 얼마든지 마신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술에 정복되는 적은 한 번도 없다. 밤새이도록 한 손에 술잔을 들고 군사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평론하며 교육을, 경제를, 산업을, 사회를 토론하는 총독의 웅변은 실로 현대 일본정치가 중에서 커다란 광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웅변보다도 더욱 빛나는 것은 총독의 혁혁한 무훈이다. 일러전쟁 때에는 제30연대의 중위로서 출정하고 장렬한 육박전을 감행해야 공 4급을 배수한 것을 비롯하여 시베리아의 넓은 평원에서 세운 공훈에 의하여 공3급 그 유명한 만주사변 때의 활약에 의하여 광영의 공2급을 배수하였다. 또 소병문(蘇炳文)의 흐른바일 사건과 열하(熱河) 작전에는 청사에 길이 빛나는 무훈을 남기시고 장고봉(張鼓峰) 사건 때의 용감무쌍한 활약은 당시의 소련 극동군 사령관 블류헤르를 면직시키는 동기를 만든 것은 너무나 유명한 숨은 사실이다.

“조선은 그림다. 마치 옛집을 찾아가는 느낌이다. 내가 조선에 있을 때와는 정세도 대단히 바뀌었고 반도의 실정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대체는 짐작한다. 군사령관으로 3년 동안이나 있었고 또는 척무대신으로서 외지 행정을 직접 맡아본 것이 있으니 조선에 대하여서도 약간의 의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오늘은 이야기 할 시기가 아니다. 장차 기회를 봐서 적당한 의견을 발표하여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이것은 총독이 지난 29일 친임식을 끝내고 신문기자단을 통하여 반도 2천4백만 민중들에게 보낸 총독으로서의 첫 말이었다. 태평양전쟁이 반도가 깊어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 사명은 10억 동양인들의 발전과 동아공영권 건설의 추진력이 되고 있는 이때에 일찍부터 일본 유수의 남진론(남진론)의 제창자였고 또한 만주 이주협회장의 중임을 맡아 만주개척에 온 정력을 바쳐온 소기 총독의 탁월한 정치적 구상과 과단성 있는 실천력이 반도통치 사상에 찬연히 빛나는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남녘노소를 불구하고 반도의 전 민중은 두 팔을 들어 우리들의 새 총독을 맞이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온정 총독의 지휘를 기다리는 바이다.

〈출전 : 徐樞, 『朝鮮總督小磯將軍論』, 『半島史話와 藥土滿洲』, 新京:滿鮮學海社, 1943년, 37~39쪽〉

## 10. 유광렬(柳光烈)

### 1) 대전 후의 세계관

1.

1942년의 신춘은 왔다. 1941년도 바야흐로 저물려든 12월 8일에 아(我) 제국은 폭만(暴慢)한 미영(米英)을 상대로 포화를 퍼붓는 정의의 전(戰), 대동아전쟁을 선(宣)하여 육해공으로 경이적 전과를 거두는 중에 아등(我等) 국민은 1942년의 신춘을 맞았다. 삼가 어능위(御稜威)하의 '황군'<sup>44)</sup>의 필승을 축원하는 바이다. 『춘추(春秋)』의 편집자로부터 대전 후의 세계관을 써 달라 한다.

대개 인류의 역사는 심히 단순치 아니한 것이다. 어떠한 천재적 사회과학자나 박식달고(博識達考)의 평론가로도 도저히 명일의 세계를 말할 수 없음을 마치 기상관측자가 명일의 천후를 정확히 말할 수 없음과 같이 지난한 일이다. 그럼으로 속담에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고 하였고 또 현하 전지 구상에는 거대한 전쟁이 진행 중이다.

현재를 비판하고 또는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안전(眼前)의 현실이 너무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현실 중에도 우리는 한가지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으니 그것은 인류역사는 항상 불의를 배제하고 정의로 진행하여 편파와 독점을 배제하고 공정과 평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나사변'<sup>45)</sup>이 일어나던 1937년에 근위(近衛) 제1차 내각이 성립된 후 근위 수상은 그 포부담으로 국내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제로는 국제정의를 실현하기를 기한다 하였는데 동년 7월 7일에 지나사변이 일어나서 미영의 의장(擬裝)한 세력인 장개석(蔣介石) 정권과 교화(交火)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점차 확대 노골화하여 필경 작년 12월 8일의 대동아전쟁에 이르고 만 것이다.

2.

그러므로 전후의 세계관은 이 국제정 정의와 사회정 정의의 실현으로써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횡(橫)으로 지역을 표준하여 보고 종(縱)으로 역사의 변천 및 전후의 사상동향 등으로 보려한다.

첫째 지역적으로는 영(英) 제국의 붕괴이다. 영국은 '엘리사베드'조(朝) 이래에 영 황실의 윤택하에 공연히 세계적 해적이 된 자이니 그 해적의 발달이 현재 소위 7대양을 지배한다는 영국 해군을 이루었던 것이요 이 해군의 힘은 서반아(西班牙-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기고 구주에서의 불란서를 제(制)하고 항해의 선진자인 서반아, 화란(和蘭-네덜란드), 포도아(葡萄牙-포르투갈)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서반구에는 가내타(加奈陀-캐나다)를, 아블리가(亞弗利加-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침략하였으며 소사운하(蘇士運河) 개착(開鑿) 이후로는 지부랄탈, 말타, 소사운하, '아덴'을 지나 3억7천만의 인도를 영유

44) 일본군.

45) 중일전쟁.

하고 마래(馬來-말레이), 비루마(미얀마), 호주, '보르네오', 신서란(新西蘭-뉴질랜드), 지나(支那-중국)의 항항(香港-홍콩), 상해(上海), 양자강(揚子江)에까지 뻗어있는 소위 해양제국이 된 것이다. 영 본국은 4천7백만의 인구를 가진 도서(島嶼)로서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없으면 그 본토산으로는 3개월을 지(支)치 못하는 것인데 세계제일의 소맥이 난다는 가내타, 세계제일의 양모가 난다는 호주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강국 노릇을 하든 것이다. 그럼으로 이런 지역에서 의, 식, 주의 물자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우세한 해군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쟁에 대서양에서는 독일의 해항정(海航艇)에게 달마다 수십만 톤(噸)의 상선(商船)이 침몰되고 지중해에서는 이태리(伊太利)의 공·해군에게 곤혹(困惑)되며 동아에서는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이래 불과 수일에 영국의 신예를 사랑하든 주력전함 '프랜스·어브·웰스'호와 '오리펠스'호가 격침되었고 항항은 물론 그들의 동아 침략의 아성이라 한 싱가포르(新嘉坡-싱가포르)가 낙성(落城)될 날이 불원(不遠)한 것으로 보아 영국의 생명인 해군이라는 것이 도저히 금후에는 그 해양제국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바이니 이것이 붕괴이론의 기일(其一)이요.

영국은 공업국이다. 그들의 식량은 식민지에서 가져오고 그 본국은 소위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칭하든 바이라. 그것은 18세기 말엽 이래로 소위 산업혁명으로 산업조직을 가장 먼저 혁신하였고 해외에서 염가로 약(掠)하는 식료와 원료로 생산하는 상품이 다른 어느 나라의 상품보다도 싸다는 자신하에 자유주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제자들이 집요히 이를 실행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의 원료가의 등귀, 국내 노동자의 생활향상 등은 도저히 종전과 같은 세계시장에서 자유로 경쟁할 수 있는 값싼 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요 연전(年前)에는 아(我) 섬유공업의 상품이 영령 제 지역에 홍수같이 뒤덮은 때에 자유무역의 본가라고 자칭하든 영국이 황망히 '오타와'회의로써 영령 제 지역에 고율관세 장벽을 쌓고서야 소강을 얻었으니 영 해군이 전시의 우위를 보(保)치 못함과 같이 평시의 산업전에 패한 것은 자명하니 이것이 영국 붕괴이론의 기이(其二)이요.

영국은 본토의 4천7백만, 가내타의 1천수백만, 호주의 8백만 등이 순연한 영 본토인의 동근(同根)이요 아불리가의 흑인과 인도의 3억7천만 면전(緬甸-미얀마), 마래, 보르네오 등의 동양인은 2백2십여 국어를 하는 유색인으로 영국에 대한 원차(怨嗟)가 높은 터이니 이들이 해방을 요구할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영국 붕괴이론의 기삼(其三)이다.

### 3.

둘째로 미국의 패퇴를 예상한다. 미국에 대하여 세(世)의 경제학자는 자본주의 발달의 한 변체(變體)라고까지 한다. 영국과 같이 식민지에서는 약탈하여 자본주의를 성육시킨 것은 본격적이다. 미국은 비교적 자국 내에서 원료, 생산, 판매를 자영하여 그만큼 발달된 것이라고 하여 변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 그 자체가 영국의 한 식민지로서 성장한 것이다. 세(世)에서는 청교도의 자유이니 무엇이니 하나 기실은 영 본토나 구주에서의 영년(永年)의 쟁패전 중에서 피한 자 및 그 본국에서 실패한 방랑자 등이 집합하여 건국한 것이요 이것은 아미리가(亞米利加-아메리카)의 인연(人烟) 희박, 물중지대(物衆地大)한 광대한 지역이 그렇게 하게 함이다. 그럼으로 그들에게 첫째 동근동혈(同根同血)의 국민적 단결이 결여하다. 둘째로 그들은 군사상으로 심히 □방(□愆)하다. 불과 수만의 군으로 대처하

든 독립전쟁에 영 본국을 익혔다는 것도 영불(英佛)쟁패의 소산이요 미서(米西)전쟁에 익인 것도 퇴세의 서반아의 약점이 있었든 것이요 지난 번 구주전쟁에는 열국이 피폐한 틈을 타서 서부전선에 파군(派軍)하였든 것이 상대편인 독일의 피폐와 내분으로 승전국 측에 들게 되었는데 이것을 마치 자국이 전쟁만 하면 이기는 듯이 폭만하게 생각하여 세계의 경찰이라 방언케 된 것이며 13주(洲)로부터 48주로 발전하고 동아의 비률빈(比律賓-필리핀)이라는 근거지까지 두게 되었으나 이번에 대동아전쟁의 발발로 동아에서 패퇴할 것은 물론 그 폭압하에 있던 남미는 그 인종이 서반아인이 허다한만큼 서반아가 독·이와 같은 전체주의국으로 발전하는 이상 미국의 대 남미 세력은 쇠퇴치 않을 수 없고 만일 영 본국이 독·이에게 쫓기어 가내타로 가게 되면 같은 ‘앙글로삭손’의 내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셋째로는 불국의 쇠퇴이다. 이번에 독일에게 제압된 이래로 힘써 부흥을 책(策)하고 있으나 ‘알싸스로렌’이 독일에 넘어갈 것은 물론 튀니스, 아블리가의 불령(佛領)이 독·이의 경영이 되지 않을가 하며 불인(佛印-프랑스령 인도네시아)은 일불(日佛) 합의하에 대동아공영권에 들게 될 것이니 하여간 영국에 차(次)하든 불 제국으로는 쇠퇴라 할 수 밖에 없다.

넷째로는 구주 소국의 변형이다. 화란, 포도아, 백이의(白耳義-벨기에) 등 소국이 그 본토를 직할 국방력도 없으면서 해외에 광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더욱 화란은 해군의 실력이 없으면서 동아의 내정(內庭)인 동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寧)히 소지(笑止)할 일이다. 이것은 전혀 영국의 심원한 음모하에 구주의 강국이 점령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상(敍上) 소국으로 하여곰 점(占)케 하고 사실상 주인은 영국이 된 것인데 영국의 붕괴에 따라 변형될 것은 물론이다. 동인도가 아(我) 대동아공영권에 들게 되고 백령(白領) 정말령(丁抹領-덴마크령) 등이 독, 이의 지도하에 변형되리라고 보게 된다.

다섯째로는 소련의 변형이다. 소련이 독일에게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맺일 여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소련이 종래와 같이 공산주의, 세계적화주의(世界赤化主義)로만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 자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번에 국가주의에 굴복하였으며 (물론 처음부터 적색국가주의이나) 둘째 영, 미와 연결하기 위하여는 민주주의와 타협하고 신교(信敎)의 자유를 허치 아니하였는가. 독일에게 쫓기어 깊이 ‘우랄’ 산동(山東)으로 오든지 또는 현 스탈린 정권에 변동이 있을른지 소련의 진로에 일변(一變)이 있을 것도 예측된다.

이상으로 보아 전후의 세계를 대체로 예상하여 보았으나 이것은 주로 파괴되는 방면을 본 것이요 건설의 방면은 아니다. 그러면 건설방면은 여하한가.

#### 4.

건설방면은 파괴방면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건설은 그 시기에 따라 방법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첫째로 아국(我國)이 지금 진행하는 대동아공영권은 일(日), 만(滿), 지(支) 일체에 다시 태국(泰國)과의 공수동맹, 불인(佛印)의 공동방위, 동인도의 포함 등이니 대체로 이것이 완성하면 전시와 평시를 물론하고 원료의 자급과 유무상통의 확보가 될 수 있으며 다시 이것이 면전, 인도의 해방에 이를 때에는 미영의 질곡하에 있던 동아 10억의 민중이 자산(自山)의 천지에 활보케 될 것이요 신(新)지나와 몽고(蒙

古)의 성장은 광대한 부원(富源)을 개발하게 되리니 이리되면 태평양, 인도양, 북미양(北米洋)이 동아인의 호수(湖水)가 될 것이다.

둘째로 독일의 구주신질서는 어떠한 것인가. 동구라파로 진(進)하여 ‘우쿠라이나’의 곡창과 ‘코카사스’의 유전을 확보하고 ‘쁘헤미야’와 ‘알싸스 로렌’의 철은 유유(愈愈) 구주의 서울로서 공업국의 면목을 가질 것이니 이것은 히틀러 총통의 ‘마인캠프’의 그리는 이상이요 백림(伯林-베를린)으로부터 토이기(土耳其-터키)의 ‘비산친’을 지나 ‘이란’의 ‘박다르’로 나오는 삼(三)B정책은 카이제르가 그리든 이상이니 전자는 접양주의(接壤主義)로 진출할 것과 해외식민경영이 노다공소(勞多功小)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히틀러가 재야시대의 주장이요 또 독일이 한창 비밀군비를 진행하는 중에 있어서 해외식민지를 주장하여 영, 불이 눈을 등잔같이 뜨고 덤비는 것을 피하려는 정책도 가미하였었겠지만 또 진리로 보아도 해외식민지 경영과 접양지 발전은 얼른 그 우열을 판단키 어렵다.

그러나 지금의 독일=특히 영국을 타도한 후에는 서상(敍上) 이자(二者)를 병행할 수도 있고 아블리가의 광대한 영령(英領)과 소국령의 경영을 지도하게도 될 것이다.

셋째로 이태리는 여하한가. 이태리는 못솔리니가 말한 바와 같이 “지중해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요 고(古) 로마제국을 부흥하려 하는 것이다.” ‘빨간’반도로부터 근동(近東)의 제국(諸國) 토이기, 이란, 이락을 위압하고 아블리가의 제 지역=리비아, 튀니즈, 소말리란드, 애치오피아, 애급(埃及-이집트) 등을 장중(掌中)에 넣어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 5.

넷째로 구주에 있던 20여 소국은 모다 독·이와 지도하에 들되 특히 종래의 영미 중심의 소국 대립을 배제하고 실제 경제와 복리를 위하여 적지적소(適地適所)의 생산을 시키는 동시에 소국분립의 관세를 철폐하고 통화로 미, 영 본위의 금본위에서 이탈하여 빠터제(制)로 될 것이니 이리되면 ‘빨간’의 농산물과 백이의의 공산품이 종래와 같은 관세장벽이 없이 상호교환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이 일은바 구주연방안(案)인데 구주가 이렇게 구주 자체를 위하여 단결한다든지 동아가 동아인 자신을 위하여 단결하는 것을 미영은 극도로 싫어한다. 히틀러는 말하기를

“영국은 3백년동안 구주에 새 큰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여 놓고 그 동안에 세계제패를 하였다” 하고 다시 “영국은 구주와 빨간(소국 대립의 대표적 지역)화를 기도하고 불국은 독일의 ‘빨간’화를 기도한다”고 보(鞞)하였다. 그러나 영, 불, 미의 오래 쓰든 상투수법인 ‘분립시켜 지배한다’는 원칙은 구주인은 구주인 자신을 위한 단결과 동아인의 동아인 자신을 위한 단결하에 분쇄되고 만 것이다.

다섯째로 불국은 여하? 비록 패잔국이나 고도의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독일의 ‘빨간’화를 기도하든 불국이 어느 틈엔가 독일은 철과 같은 국민적 단결이 되는 반면에 불국 자신이 소당분립(小黨分立)으로 ‘빨간’화하여 자유의 감주에 심취하여 국방보다 탄스를 더 좋아하고 건전한 부부생활 보다 자유연애를 더 탐구한 대상(代償)으로 금일의 고배를 물고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불란서는 19세기 사상에 일 역할 자이며 고도의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불란서의 문예, 불란서의 철학, 불란서의 미술은 그 국민의 정신력을 볼 수 있고 과거에도 여러 번 비참한 국난이 있었으나 아모리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아픈 다

리를 끌고 일어서는 것은 나폴레옹시대에 그러하였고 보불전쟁에 그러하였으니 독일도 불란서에게만은 주권 기타를 충분히 존중하여 히틀러의 일은바 “독일의 발전을 방해치 못하도록 결박만 지어두면 고만”일 것이다.

여섯째로 영국은 어찌할 것인가. 동맹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 것인가? 그 근기를 가지고 영불 백년전쟁과 같이 서상(敍上)의 붕괴과정을 밟으면서도 최후까지 항전할 것인가. 영불 백년전쟁이 매일매야(每日每夜)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이번의 영국 패퇴전도 이번 전쟁이 영국의 굴복으로 마친 후에도 다시 그 화심(禍心)을 재발하여 중래(重來)하지 않을까 보(保)키 난(難)한 점도 있는 바이다.

## 6.

이제 전후의 사상계는 어찌 될 것인가. 히틀러는 금반 아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영에 선전하는 동시에 최후의 승리를 강조하고 이것이 동일의 5백년 또는 1천년 계획인 것을 말하였다. 그럼으로 이번 전쟁이 그친다 하여도 의연히 세계신질서 건설은 경계하에 진행되고 그러니만큼 값싼 낙관이나 자유주의는 금물인 동시에 엄숙한 국민적 내지 대 지역적 단결도 개인보다 전체에 대한 행복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요 실력이 말을 한다는 ‘역(力)’의 철학은 군고(軍鼓)의 뒤에서 높이 울릴 것이다. 또 인간생활의 물질방면을 맡은 경제는 통제하에 놓이고 일정한 계획하에 놓일 것이니 이러한 대 지역의 수십억 인구의 공영을 위하여는 이윤만을 근본 토대로 하는 자유주의 경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我) 동아공영권의 지도 이상인 일본정신에 대하여 전 평소(平沼)수상은 “만물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일본의 이상은 미영이 침략을 배제하고 팔굉일우로 사해가 한 집같이 살자는 것이니 즉 침략의 대(代)하는 도의의 세계를 건설함에 있는 것이다. ‘못소리니’는 공산주의를 박(駁)하여 왈(曰) 사람은 어느 경우에는 도덕적이요 어느 경우에는 영웅적이지 공산주의와 같이 “경제적 인간만 주장하고 사람을 ‘생산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분만(憤懣)하는 바이다” 하고 다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소유욕을 허함은 그 인격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요 사유를 부인하고 관료로만 경영하는 소련의 산업은 정체하리라” 하였다.

아(我) 일본정신에 의한 경제와 문화는 물론 만인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는 이상의 세계로 전 동아의 해방과 자유를 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근위(近衛) 공(公)이 말한 바 국제로는 국제정의 국내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음이요.

다시 이것은 필자가 모두에 말한 평형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즉 지구 5분의 4를 지배하던 미영이 물러가고 동아와 구주는 다 각각 자신을 위하여 각득기소(各得其所)하는 신질서를 세우게 될 것이요 국내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경제와 문화는 만인이 다 잘 사는 공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어떠한 파란, 굴곡, 우회가 있을지라도 인류역사의 진전은 항상 이 가도(街道)로 진행되는 것이다.

〈출전 : 柳光烈 「大戰後의 世界觀」, 『春秋』 1942년 2월호, 24~28쪽〉

## 2) 대동아선언의 의의

### 1.

황송하옵게도 지난 12월 8일에 광영에 대한 선전의 대조(大詔)를 환발(渙發)하옵사 동아영원의 평화 확립의 대의를 소시(昭示)하옵셨는데 이 성려(聖慮)를 봉체(奉體)하여 금차 제국의 성전을 동아를 해방케 하는 ‘대동아전쟁’<sup>46)</sup>이라 하게 되고 79의회에서의 도조(東條) 수상의 ‘대동아전쟁’의 의의와 금후 제국의 태도에 대한 연설은 전 세계의 이목을 용동(聳動)케 하는 바로 이것은 ‘대동아선언’으로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다. 18세기 말엽으로부터 20세기에 걸쳐 수백 년에 걸친 영미(英米) 양국의 세계침략은 이에 20세기 중엽의 동아의 발흥(勃興), 특히 우리 일본제국의 발흥으로써 그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나는 이 대동아선언에 대한 세계사적 의의를 조명하여 더욱 우리 국민의 감격과 분기(奮起)를 촉구하고 그 책임의 중대함을 경고하는 바이다.

### 2.

서양인 중 특히 영국인들은 ‘이스트 이즈 이스트’ ‘웨스트 이즈 웨스트’ 등은 동이요 서는 서라고 하여 의연히 구별하나 이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방편을 위한 구분이요 결코 그들이 서방에 있다 하여 서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동아를 그 배하(配下)에 두려는 야망 속에는 이 구별을 도외시 하고 침침연 침략(駸駸然侵略)을 계속하여 동아인의 피로 그만큼 그들은 비대하고 금일의 세계적 부강을 이룬 것이다. 서양인의 동양침략은 그 연원이 자못 심원(深遠)하니 중세기의 대상들이 인도(印度)의 부를 육상교통으로 무역에 의하여 얻은 것을 해로로 의하여 침략에 의하여 얻으려는 데에 거대한 화심(禍心)이 잠재했던 것이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亞米利加)대륙을 발견하고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태평양을 횡단한 것을 그들 백인의 역사가들은 한결 같이 인류역사에 큰 공헌이나 한 듯이 추장(推崇)하나 기실(其實)은 해로로 동아에서 황금을 약탈하여 가겠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요 세계의 미개지(未開地)를 모두 그 침략하에 두려한 것은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날 때에 ‘어떠한 지역이든지 정복하는 대로 포르투갈(葡萄牙)과 스페인(西班牙)이 반분하자’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명백한 바이다. 이러한 불순한 동기하에 세계침략을 개시하여 맨 먼저 포르투갈인은 인도와 말레이 반도(馬來半島) 중국(支那) 광둥(廣東)에 세력을 세우고 스페인인은 필리핀(比律賓)섬을 점령하며 대만(臺灣)에 근거지로 삼았고 뒤미쳐 온 네덜란드인(和蘭人)이 포르투갈인을 구축(驅逐)하였던 바 다시 나폴레옹전쟁으로 강대해진 영국이 프랑스(佛國)와 동아시아의 경쟁을 하여 수많은 곡절(曲折)을 지난 후 인도와 말레이 반도, 미얀마(緬甸)는 영국의 손에, 남양군도(南洋群島)는 영국의 후견하에 네덜란드령으로, 베트남(安南)은 프랑스령(佛領)으로 되고 이 경쟁에 선수권을 잡은 영국은 백 년 전에 아편전쟁(阿片戰爭)을 일으키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양자강(揚子江) 유역을 그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남북 아메리카주에서도 앵글로 색슨족은 부절히 원주민을 박해하고 그 피 위에 미국을 건설한 후 40년 전에는 동아시아에

46)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뜻함.

한 몫을 들어 미서전쟁(米西戰爭)으로 필리핀을 점령하고 중국에 대하여 문호개방 기회균등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노선을 달리하여 러시아(露西亞)는 시베리아(西伯利亞)를 횡단하여 호시탐탐(虎視眈眈) 만주(滿洲)로 남하, 전 동아를 병탄(併呑)하려는 기세였다.

### 3.

이 서양인의 동아침략은 그 근본적 동기가 동아의 황금과 실물을 약탈하고 영지를 점령하려는 데 있었으나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아 외적, 내적, 중요한 소인을 몇 가지를 고찰하면 첫째 외적으로는 유럽(歐羅巴)이 중세기의 암흑을 지나서 종교개혁, 문예부흥 등으로 인심(人心)을 일신(一新),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여 모든 산업에 새로운 기계력을 이용하고 이것이 동기로 자본주의가 발흥되었는데 이 자본주의로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발전시키어 완성에 한 것이 영국이요 지리적으로 섬나라인 영국은 구주(歐州)의 모든 강국을 그 우세한 해군력으로 차례로 굴복시키고 이 우세한 해군력은 한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교양에 의하여 세계시장의 형성을 요구한 것이니 비록 실력의 차이로 포르투갈(葡) 네덜란드(蘭) 프랑스(佛) 러시아(露)는 그 노정(路程)은 달리하였으나 모두 동곡이교(童曲異巧)인 것이다. 즉 저들의 문예부흥 이래 과학의 발달 경제력의 증장(增長)은 그대로 군사력이 되어 동아침략을 개시한 것이요 다시 이것을 내적원인으로 볼 때는 동아인 자체가 각성치 못하였던 소이(所以)이다. 우리 제국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삼백년 쇠국(鎖國)은 국민의 세계적 발전을 저해한 바가 심대(甚大)하였고 중국은 한족(漢族) 자신의 자주국이 아니요 여진족(女眞族)의 지배하에서 그 진취의 지상이 저하되었던 관계로 이 서양인의 치열한 동아침략에 하등의 반격을 준비 또는 실현치 못하였던 것이다.

### 4.

과연 영미를 수반으로 한 세계침략을 안정(安政) 5년 미국의 위협에 의한 우리나라의 개국으로써 그 대체의 취서(就緒)가 된 것이니 만일 이때에 우리나라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의한 발흥이 없었더라면 동아는 그대로 저들의 과분(瓜分)하에 신음하게 되어 암흑의 대륙이란 별명을 듣는 아프리카(亞弗利可)의 제2번이 되었을지 아메리카가 인디언같이 저들의 살육에 일임하게 되었을지 실로 전율할 바이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발흥은 1894년의 일청전쟁(日淸戰爭)에 의하여 근대국가로서의 완성을 보이었다. 그 후로 열강의 중국 과분열(瓜分熱)은 더욱 증장되어 필경 동아를 병탄하려는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정면충돌을 하게 되어 세계를 재차 경동시키었다. 이 일러전쟁(日露戰爭)은 실로 대동아 발흥의 광명을 동아의 모든 민족에게 방사(放射)한 것이다.

한족은 비로소 중국을 현대적 국가로 개조하면 서양인의 병탄을 면(免)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인도인은 비로소 영국의 100년 질곡(桎梏)을 벗어나서 자주(自主)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희망에 불타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지사(志士) 간에는 아세아주의(亞細亞主義)가 활발하게 그 토구(討究)의 문제로 오르게 되고 이 아류를 급(汲)한 손일선(孫逸仙)<sup>47</sup>도 아세아주의를 제창하게 되었다. 손일선은 그가 서거하던 해에 북경회의(北京會議)를 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고베고등여학교(神戸高等女學校)에서



‘대아세아주의’에 대한 일장의 강연을 한 것은 그가 사상적으로 연소용공(聯蘇容共) 등 수많은 굴신곡절(屈伸曲折)을 지나면서도 최후적 원숙(圓熟)은 ‘대아세아주의’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는 ‘일본이 없이는 동아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명언(明言)한 것으로 보아 그의 중심사상은 ‘대동아주의’였던 것이다. 이 대동아주의는 일본민족의 선각과 일러 전후의 전승에 의하여 동아 각 민족에게 편만케 된 것이다.

## 5.

우리나라는 이 대동아주의를 국시로 하면서도 오히려 수많은 은인자중(隱忍自重)을 하였었는데 저들 영미는 우리나라를 과소평가하여 파리근대강화(巴里近代講和)에서는 호주백인주의(濠洲白人主義)의 이기주의하에 인종평등안을 부인하여 유색인종을 영원히 차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워싱턴(華盛頓) 회의에서는 영미 오(五), 오(五) 아국 삼(三)으로 영원히 우리나라의 해군을 저들보다 열위(劣位)에 두려 하였고 신사협약(紳士協約) 이래, 우리나라인의 제한이민도 배일법안으로 거부하였고 우리나라의 상품을 모든 미, 영의 영지에서 고율관세로 거절하고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스티븐슨은 불승인주의(不承認主義)를 내두르고 중일전쟁에는 원장(援蔣)태도를 계속하여 동아시아의 향상을 극력방지(極力防止)하고 동아를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화 하려한 데서 우리나라는 이번의 ‘대동아전쟁’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미영 양국이 스스로 그 분한(分限)을 알아서 미국은 남북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그 제패를 하고 영국은 캐나다(加奈陀)와 아프리카 일대에서 그 자위(自衛)를 책(策)하고 구태여 동아시아에서의 패권(霸權)에까지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던들 금일의 대동아전쟁은 그 시기를 달리하였을 것이요 세계역사도 또한 다른 문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 그 산업 즉 저들의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증대하여 남북아메리카로만은 만족치 못하게 되었고 영국의 노대(老大)자본주의도 동아시아의 착취가 그 부강유지의 최종(最重)한 요소가 되는 데서 필사적 대항을 하게 되었으니 금일의 대동아 전쟁은 시로 이러한 역사적 약속하에 한 숙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이다.

## 6.

개전 이래 근근(僅僅) 50여 일 동안에 황군은 말레이 반도 삼천리 전선을 석권하고 은은(殷殷)한 포격은 영국의 동아 착취의 중요거점인 싱가포르(新加坡)에 군항을 건설하려할 때에 원해상(元海相)이던 아메리카는 ‘영국 해군이 동양에서 타의 제약을 받아 자유로 활동할 수 없게 되면 영국은 마치 빈혈병자 같이 일복일쇠약(日復日衰弱) 일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이 금일의 성대를 보게 된 것은 동양의 자원을 이용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원을 이용하여야만 영국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자본의 활용에 의하여 세계를 응비(雄飛)할 수 있다. 동양은 영국의 보고(寶庫)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군항이 절대 필요하다.’ 운운(云云)한 것으로 보아 저들의 자본주의에 의한 동아 착취는 그 본질상 불가피요 동아의 보고를 내놓고는 빈혈병자가 된다고 절규한 것으로 보아 동아시아인의 피를 빨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었던 것도 알 수 있다.

47) 손문(孫文).

그런데 이 흡혈의 최종요한 근거지를 싱가포르가 함락되면 저들은 패퇴(敗退)치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7.

그러면 제국이 싸우고 있는 대동아전쟁이 백색인종인 미영과 싸운다 하여 인종전쟁이나 하면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첫째, 같은 백인 중에도 미영의 착취적 구질서에 대항에 도의적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독이(獨伊)와는 동맹의 굳은 약속하에 독이는 구주에서의 신질서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의 신질서를 각각 분담하기로 된 것이니 미영의 세계적 착취제패를 분쇄하여 그 지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영권을 건설하는 것이다.

금후 구주의 신질서는 구주 자신을 위하여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건설하게 될 것이요,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자신을 위하여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79의회에서 도쿄(東郷) 외상은 '제국으로서 적국 측이 선전(宣戰)하는 인종전은 예상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제국은 편협(偏狹)한 배타적 의도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므로 동아시아공영권의 관념과 같은 것도 하등 배타적 폐쇄적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 따라서 위 공영권과 권외의 우호국과의 경제교통과 같은 것도 건설과정의 나아감에 수반하여 수차 긴밀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한 것으로 보아 이 대동아전쟁이 배타적, 인종적 전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 8.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은 그 구도가 심히 웅대하여 일(日) 만(滿) 화(華) 삼국이 일체로 될 뿐 아니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와의 공동방위, 태국(泰國)과의 공수동맹(攻守同盟)으로 미영의 괴뢰(傀儡)가 된 중경(重慶)정권을 제하고는 전 동아가 일치하여 추진하는 세계사적 대전쟁이요 대전설이다.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2개월에 황군은 필리핀, 네덜란드령 인도(蘭印)를 차례로 석권하고 홍콩과 말레이 반도를 장중(掌中)에 넣었으며 멀리 호주의 문호(門戶)인 브리튼 섬에 상륙하여 20년 전 파리강화회의에서 영인호주주의(英人濠洲主義)를 고조(高調)하고 인종평등안을 악살(握殺)하던 호주영인의 심담(心膽)을 서늘케 하였으니 이 세계사상 미증유의 전과에 대하여 국민은 오직 무한한 감사를 바칠 뿐이다. 도조 수상의 연설에 대동아전쟁의 지도방침으로는 '전략적(戰畧的) 거점을 확보함과 공(共)히 중요자원지역을 우리 관제(管制) 아래에 수(收)하여 이에 의하여 우리 전력을 확충하면서 맹방(盟邦) 독일, 이탈리아 양국과 협력 상호 응(應)하여 적극적 작전을 전개 미영 양국을 굴복시킨다.' 하였고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대하여는 '공영권 건설의 근본방침은 우리 조국의 대정신에 숙원하는 것으로 대동아의 각 국가 및 각 민족으로 하여금 각득기소(各得其所)케 하고 제국을 핵심으로 하는 도의에 기(基)한 공존공영의 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미, 영의 질곡 아래에서 신음하던 각 민족을 해방하여 각득기소케 함은 물론이나 이를 위하여 우리 제국의 최후 승리가 절대조건이요 동아시아의 안정은 제국이 근간(根幹)이 될 것이므로 동아시아방위의 기지를 확보치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의하여 '홍콩, 말레이 반도는 여러 해 영국령이었던 위에 동아시아 화란(禍亂)의 기지가 되었으므로

제국은 철저히 화란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이들을 대동아방위의 거점이 되게 한다.’

‘필리핀 제도는 금후 민중이 제국이 수행하는 대동아전쟁의 진의를 해(解)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일익으로 협력하는 경우에는 제국은 혼연(欣然)히 저들에게 독립의 영예를 여(與)하고 미얀마에 대하여도 필리핀 제도와 동양(同樣)의 대우(待遇)를 하고 네덜란드령 인도와 호주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제국에게 항전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용사(容赦)없이 격쇄(擊碎)하고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여 협력하여 오면 그 복지발전에 충분히 이해 원조한다.’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동아를 미영으로부터 해방하는 동시에 미영의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침략을 방지할 것을 엄중히 제시한 바이다.

다시 남방개발의 구체적 방침으로는 ‘제1로 자원획득, 특히 전쟁수행 상 긴요한 자원을 확보할 것. 제2로는 남방자원이 적성국가로 향하여 유출함을 저지할 것. 제3으로는 작전군의 현지생활을 확보할 것. 제4로는 재래의 기업을 우리나라에 협력하도록 유도할 것’ 등이며 이 경영을 위하여 국내산업을 국가본위로 중점주의에 치중할 일 특히 우리나라가 금후 거대한 대륙국가인 동시에 거대한 해양국가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선박의 건조(建造)가 급무인 것을 역설(力說)하고 이 세계사적 건설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의 쇄신, 의료의 향상을 거(擧)하여 금후의 전쟁과 건설이 여하히 장구(長久) 또는 전면적인 것을 알렸다.

## 9.

서상(叙上)으로써 대동아전쟁의 역사적 원인 및 근원, 이것이 대동아 건설의 전면적 진출에까지 이르는 계열 및 그 장래의 진로를 일고(一考)하였거니와 끝으로 이 대동아 선언과 우리 국민과의 관계 세계사적 의의를 말하여 결어를 삼으려 한다. 동아 각국은 지역적으로 보아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먼 역사적 인연으로 시간적으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본과 조선이 언어와 신앙으로 같은 계열에 속함은 그중에도 현저한 사실이거니와 일찍이 중국 문헌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문신(文身)의 원시적 습속은 남양군도의 유속(遺俗)이며 수천 년의 동화귀일(同化歸一)을 지낸 오늘에 오히려 일본의 일부 가옥제도에 는 남양의 풍속이 남아있다 하니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대동아는 그대로 한 공영권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바이요 다시 현실문제로 지역적으로 볼 때에 동아인이 스스로 자주 자립치 못하고 필리핀이 격원(隔遠)한 미국의 속령이 되고 말레이나 미얀마가 수만리를 떨어져 있는 유럽의 영국의 속령이 되고 7천만 인구가 사는 남양군도가 하등의 실력도 없는 구주의 작액소(獵額小)의 하나의 소국인 네덜란드의 속령이 되었다는 것은 심히 부자연스럽다느니 보다 같은 동아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느끼는 바이다. 저들 영미를 수반으로 한 동아 착취국들은 표면 관대(寬大)를 가장하여 남양 각지의 풍속과 기타를 그대로 방임하는 듯 하나 그 실제 저들은 착취 이외에 하등 동포적 정애(情愛)로써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의 향상을 꾀하지 아니하여 원주민 문화는 천년 하루와 같이 뒤지고 모든 산업도 그 종주국 본위로 단일작에 종업케 하여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저들에게 예속케 하였으니 이 모든 불의와 편파를 광정(匡正)하여 진실로 동아인 전체가 공영하도록 계도(計圖)하는 것은 당연 또 정당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고 지역적으로 접근한 나라끼리 그 구성국가 등 자체를 위하여 합리적 해결을 하는 것이 대세이요, 또 이윤만 추구하던 미영의 자유주의 경제를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 우선

의 경제로 대위(代位)하는 것이 대세이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사명 수행이 대동아 선언의 금후 행진 과정이 될 것이다.

〈출전 : 柳光烈 「大東亞宣言의 意義」, 『朝光』 第8卷 第3號, 1942년 3월, 64~69쪽〉

### 3) 북방수호와 조선의 지위

#### 1.

현하 진행 중인 대동아전쟁은 '황군'<sup>48)</sup>의 비도(比島)<sup>49)</sup>공략, 마래(馬來-말레이)반도의 석권, 소남도(召南島)의 함락, 난인군(蘭印軍)의 전면 항복, 면전(緬甸-미얀마)의 난공(蘭貢) 함락 및 이에 의한 장(蔣)정권<sup>50)</sup>의 수혈로 차단 등으로 사상(史上) 미증유의 전과를 거두고 뒤를 이어서 인도의 해방운동, 호주의 전율, 루스벨트는 망연자실하고 거방(倨傲)한 처칠로도 전도 암담을 탄(歎)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 남, 서 태평양에서의 미증유의 승리는 그대로 아(我) 제국의 대동아공영권 완수의 일대 성공으로 보여진다. 그럼으로 이 전승에 감격한 1억국민은 오직 고열(苦熱)과 장기(瘴氣)와 싸우는 남방의 장병에게 무한한 감사를 바치게 되니 이것은 당연, 차(且) 정당한 바이다. 그러나 승전 속에서 오히려 방심을 불허하고 남방의 대승에 감사하는 동시에 이만 못지 않게 식풍한설을 무릅쓰고 북방을 수호하는 장병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잊지 아니할 바이라 한다. 금차 미나미(南) 총독이 동상(東上)을 앞둔 담화 중에 “이번 남방의 혁혁한 전과를 거둔 것은 북방수호가 완전한 데 부(負)한 바이 불소(不少)”함을 말하고 “남방에만 현혹함이 없이 북방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겠다”함은 의미심장한 말이며 본문을 초(草)하는 중에 건천(建川) 대사(大使)의 후임으로 소련에 부임중인 좌등(佐藤) 대사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아국(我國)으로서는 북방의 안전감을 일층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나의 사명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외교방책은 물론 말할 수 없다.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영양국이 일소(日蘇)국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책동과 모략을 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끝까지 황도외교(皇道外交)로서 모든 정세에 대응할 뿐이다” 한 것으로 보아 아등(我等)의 북방에 대한 경계는 일시라도 소홀히 하지 못할 바이다.

#### 2.

그러면 이 북방문제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79의회에서 토고(東郷) 외상(外相)<sup>51)</sup>은 “일소 간에 현존한 중립조약에 대하여 양국에서 이것을 엄수한다고 함에 대하여는 아모 변화도 없다. 그 점에 대하

48) 일본군.

49) 비롤빈(比律賓) : 필리핀.

50) 중국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권.

51) 토고 시게노리(東郷武德).

여는 소련정부에서 대동아전쟁 발발 후에도 이것을 엄수할 것을 재삼 언명하였다” 한 것으로 보아 일응 염려없다고 볼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현하의 국제정국은 일시도 방심을 불허한다. 일소중립조약은 작년 4월 마츠오카(松岡) 외상이 구라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체결한 것으로 양국 중 어느 편이든지 제3국의 군사적 대상이 될 때에 상호중립을 유지할 것을 약(約)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회고할 때에는 1925년에 체결한 일소수교기본조약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장고봉사건 ‘노몬한’사건 등 기다(幾多)의 불상사건이 있었든 바이니 환언하면 이 수교조약이 충실히 실행되었으면 이 중립조약은 필요치 아니 하였을는지 모른다. 이 중립조약이 체결된지 월여(月餘)에 독소(獨蘇)전쟁이 일어났다. 이와 동시에 1938년 9월 27일에 체결된 일, 독, 이 삼국동맹과의 관계는 이 중립조약에 아모러한 영향이 없다 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동맹조약 제3조에 아직 참전치 아니한 제3국에 의하여 공격되는 때에는 상호원조를 규정 하였으나 제5조에 “소연방에는 하등 영향을 급(及)치 아니할 것”을 특별히 규정한 때문이라 볼 수 있었고 상(尙) 독일의 맹격 앞에 황망히 영미의 원조를 받게 된 소련이 동 7월 12일 막사과(莫斯科-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영소(英蘇)군사협정에도 그 상호원조의 범위를 대독(對獨)전쟁에 국한하였고 다시 작년 12월 8일에 대동아전쟁이 발발하는 동시에 동 11일에 일독이 삼국 간 신군사협정에도 그 범위를 대(對)미, 영 전쟁에 국한하였고 일소중립조약과는 하등 저촉되는 바이 없다. 그럼으로 전 세계가 전쟁 속에 든 금일에도 표면상으로 보아 일소 간에는 조약상으로 보아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 3.

그러면 이 탄탄대로와 여(如)한 북방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1억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어 북방을 수호하라 하는 소이는 어대있는가. 그것은

1. 주의상 문제이요
2. 국제정세의 격변이다

첫째, 모국(某國)은 공산주의의 국가이다. 비록 그것이 동(同)국의 국내문제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변혁을 책하고 있는 국제공산당이 그 국도(國都)에 있어서 항상 타국의 적화(赤化)를 책(策)하고 있으며 특히 지나(支那-중국)에 대하여는 지나공산당(중국공산당)을 원조하여 서안사변, 국공합작-그것이 연(延)하여 대일 전면항전에까지 나오게 된 것을 상도(想到)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바를 경계치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지나 고대사의 신화에는 간혹 인신우신(人身牛身)의 초인(超人)이 있음을 본다. 모국(某國)은 국제공산당의 촉수가 있을 때마다 그것과 모국 정부와는 별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20세기의 있는 신수(身首)가 각이(各異)하다는 괴기(怪異)로만 보고 말 것이냐 또는 에집트의 스픽스 같이 불가해라고만 하고 말 것이냐 이에 대하여 아국 조야의 경계는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니다. 아(我) 근위(近衛) 3원칙에도 공동방공(共同防共)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방공특수 지대에 주둔군을 둘 것으로 역설 하였으며 일소중립조약 체결한 후에도 아국의 조야는 이 중립조약이 있다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님을 말하였고 과반 일미교섭의 파열에도 아 방공군(軍) 주둔의 주장과 미국의 전면 철퇴의 주장이 한 중요한 조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대동아전쟁은 영미의 착취적 자본

주의를 배제하는 동시에 이 방공문제가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국제정세의 격변으로 생기는 사태의 경계이니 현재 모국은 서부 구로(歐露)에서 독일군과 사투를 계속하고 있느니만큼 동아에서 아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극력으로 피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세에 대한 장래는 여하할까? 또는 실체주의인 모국은 영미로서의 받는 바 원조의 이(利)와 동서 양면작전의 해(害)와를 천칭(天秤)에 걸고 비교하여 그 평형을 보아 어느 때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없지 아니하다. 이것은 물론 현재에는 그런 사태가 없고 또 상상도 되지 않지만…….

#### 4.

말은 잠시 옆길로 나가서 조선과 북방관계의 과거를 일고하여 보려 한다. '반도인'<sup>52)</sup>은 실로 몽고로부터 남하한 민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그 후 점차 문화를 흡수하고 또는 일찍부터 농경시대에 들어오자 북방에 어떠한 강한(強悍)한 민족이 일어날 때 마다 조선은 그 비말(飛沫)에 곤혹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같은 반도인 중에 그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고구려인도 북방에서 발흥한 것이요 요(遼)·금(金) 등의 제국(諸國)이 발흥할 때에는 조선을 침략하여 대륙 경영에 한 지반을 삼으려 한 일이 있고 몽고가 발흥하여 세계를 석권할 때에도 먼저 조선을 그 배하(配下)에 두어 지반을 삼고 '달로화적(達魯花赤)'(몽고의 관명(官名))이 조선에 주재하여 그 지반 수비에 주력하였고 다시 이 지반을 토대로 하여 소위 홍안(弘安)의 원구(元寇)로 아국에 침입하였고 그 후 한(漢)민족의 위세가 전 만주에 미쳤을 때에는 반도인에게 송명(崇明)사상을 심을만큼 명의 세력이 조선에 미쳤으나 일조(一朝) 여진족(女眞族)이 만주에서 일어나자 조선은 다시 그 배하로 들어갔으며 시국이 변전하여 여진족의 청조가 쇠퇴하자 불군(佛軍)의 강화도 침입, 영국의 거문도 점령, 청조의 최후 발악인 조선에 주둔군 파견은 필경 일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태평(太平) 육군보도부장의 금년 만주국 건국절의 석(夕)에 한 강연 일절 중

1894, 5년에 아국은 무고히 침략되려는 조선의 위급을 구(救)키 위하여 당시 세계 일(一)의 대국이던 청국과 국운을 도(賭)하여 패하였다. 전후 마관조약(馬關條約)에서 요동반도를 할양케 하였으니 이것은 영토를 탐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는 요동반도를 영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래 일본 내지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는 조선의 안전을 절대 필요로 하고 조선을 안전케 하기 위하여는 만주를, 안전케 함을 절대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국의 전통사상이었다. 이 정신으로 러시아가 만주, 조선을 병탄하려 하는데 대하여 감연히 일어났다. 물론 일로전쟁도 명목은 조선에 있었으나 실상은 만주로부터 침략 러시아를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 것으로 보아 조선과 북방수호의 관계가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다시 현하의 국제정세에 대하여 좌등(佐藤) 군무과장이 지난 3월 10일 육군기념일의 석(夕)에 한 강

52) 조선인.

연 중 적, 미·영의 기도에 다하여 한 말을 보면

미·영은 독·소전에 큰 기대를 걸고 또 아불리가로부터 근동지방, 코카사스를 경(經)하여 소련 급(及) 같은 근동지방을 경하여 인도 급 지나에의 유대를 견고히 하고 일·독·이의 제휴를 방해하면서 위선 독·이의 봉침(鋒尖)을 좌(挫)하고 이어서 일본에 공세를 취하려 하는데 그 공세는 어느 방면으로부터 올 것인가. 피등이 열망하는 제일의 도(途)는 소련을 강요하여 차(此)와 협동하여 연해주 등을 기지로 하여 북방으로부터 일본 본토에 공세를 취하려 하는 것일 것이라. 송강(宋岡) 외상이 막사과(莫斯科)를 방문하였을 때에 말이 우연히 연해주의 문제에 급(及)하자 스탈린은 특히 끈으로써 자기의 목을 매는 시늉을 하며 연해주를 방(放)함은 소련으로서는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등은 북방의 여하한 사태에도 응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충분히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한 것으로 미·영의 소련을 유(誘)하여 연해주에 작전기지를 만들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히 경계할 바이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때일 것인가.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은 소련이 현존한 일소중립조약을 엄수하고 있는 이상 예상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좌등(佐藤) 군무과장은 다시

미·영은 공중과 해상에서 '게릴라'전을 행하면서 교묘히 군확(軍擴)과 공세준비에 광분하리라. 자(茲) 수년간에 공(巨)한 비행기 함선 등의 소모전과 전력 확충의 경쟁시대를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 북으로 올른지 남으로 올른지는 모르나 미국의 군확 완성 후 1, 2년 후이나 2, 3년 후 어느 시기에 미·영은 제국에 대하여 결전을 구하여 올 계제를 상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것으로 금후를 더욱 경계할 바이다.

## 6.

이에 다시 대동아전쟁에 대한 모국(某國)의 태도를 검토하건대 모국의 태도로는 종래에 미·영의 착취하에 있던 동아민족의 해방을 위한 이 전쟁을 당연히 찬동하여야 할 것이나 개전 이래 모국 신문지는 이것을 도로혀 비방하는 태도로 나온 것은 피등이 종래에 원장(援蔣)<sup>53)</sup>하든 관계상 또는 미·영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현저한 일례로는 기 국의 친영미 정치가로 유명한 모씨가 주미 대사로서 부임하든 날 마침 대동아전쟁으로 일어났음으로 모씨는 루스벨트에게

여(余)의 '와싱턴'에 도착과 일(日)을 동(同)히 하여 미국의 영토와 미국의 무장력이 마치 소련이 5개월 반 전에 몽(蒙)한지 불의 타격에 못하지 않은 타격을 타국으로부터 수(受)하였다. 현하 국제정세로부터 발생한 차 사태는 구주 급 기타 대륙에 야기되는 중인 전쟁을 거는 바의 동일한 세력과 동일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기(起)한 자이라. 차 시련의 일(日)에 여(余)는 자국민의 따뜻한 동정을 미국민에게 증(贈)하고 아울러 동종의 시련을 받고 있는 양 국민이 일층 긴밀한 친

53) 장계스 정권을 지원함.

선관계를 결(結)할 사(事)를 확신한다.

하였고 이에 대하여 루스벨트의 답사가 있어서 크게 동병상련의 태도를 보하였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이것을 곧 모국이 미국과 특별히 친선관계를 맺는다든지 또는 미국을 위하여 기지를 빌려줄 전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대개 국가의 사절은 그 주재국에 찬사나 위사(慰辭)를 정(呈)하여 외교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 본무임을 생각할 때에 서상(敍上)의 모국 주미대사의 말도 일종의 외교사령으로밖에 보혀지지 안는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동양으로 모국의 주일대사는 아국과의 우의관계가 결코 변치 안는다는 말과 또는 모든 현안해결에 대하여 아 도고(東郷) 외상과 누차의 간담을 거듭한 바로 보아 외교관의 사령을 하등 할인 없이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요는 구주전쟁이나 대동아전쟁의 진전에 의하여 어떠한 천칭이 적축으로 기울지 않는 이상 모국의 중립은 변치 않을 것이요 또는 변할 리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비 경계할 것인가? 이 이상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다.

7.

다만 아국은 방공상으로 또는 국방상으로 그 중핵점이 내지 조선 만주를 연결하여 북방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바이다. 만주국 10주년 기념에 아국 조야의 논의를 거두어 보건대

일본 만주 북지를 연결한 지대는 일본국방의 본환(本丸)이요 지나 본부는 한 외곽을 이루는 것이니 일선자(一扇子)에 비하면 내지 만주 북지는 부채의 사복이요 지나 본부는 부채살이요 남양의 동인도, 마래(馬來), 먼전(緬甸) 등은 부채의 면에 그린 화(花) 모양이라 하였다.

현하 남방의 혁혁한 성과로 중인(衆人)의 눈은 한결 같이 선면(扇面)에 그려진 찬란한 꽃을 보고 있으나 실상 부채의 생명은 사복에 있는 것이니 이 사복의 작용으로 부채는 열리기도 하고 닫치기도 하며 진(進)하여는 바람을 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은 일본과 만주, 북지를 연결하여 그 중간에 놓이어 부채 사복 중에도 중핵 사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아국의 방공상으로의 조선의 지위, 둘째로 국방상으로의 조선의 지위, 셋째로 산업으로의 조선의 지위를 일고하여 보려 한다. 만주국과 함께 조선은 공산주의국가와 접양지대이다. 또는 공산주의는 이제 초기의 구주에 배회하던 일 괴물이 아니라 다소의 변질은 있었다 할지라도 구아(歐亞)에 연공(連亘)한 국가를 이루었다. 이것이 사상전으로서의 일부 부심득(不心得)의 인(人)에게 가수(加手)하여 오지 않을가 하는 염려가 있다. 둘째, 국방상으로의 조선의 지위는 얼른 생각나는 것만 들어도 첫째로 전시에나 평시에나 국민의 생활상 필수품인 식량의 공급지이요 둘째로는 특수광물이 조선은 내지만 못지않게 풍부하니 이것이 아국 금후 장기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며 셋째, 산업상으로 조선은 만주와 같이 추운 곳도 아니요 남방과 같이 더운 곳도 아니요 무슨 공업에든지 적용할 만한 기후이요 풍부한 전력, 즉 도처에 있는 하천을 이용한 수력전은 다수한 공업을 발흥케 하고 연 30여 만씩 증가되는 반도의 인적 자원도 전도양양하다. 더욱 교통 기타도 대륙성과 해양성을 병유(併有)하여 북으로 대륙, 남으로



해양에 얼마든지 진전활용이 자재(自在)한 지위에 있으니 미나미(南) 총독의 이른바 농공병진은 서상(敍上) 식량증산과 공업발흥을 병행하자는 뜻이나 아닌가 한다. 그 뿐 아니라 현대의 국방산업은 국가의 가장 중핵지대에 두어 이것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조선이 대륙에서 일조(一朝) 유사(有事)할 때에는 식량으로 공산으로 인적 자원으로 가장 적당한 지위에 놓여 있다. 즉 제1선도 아니요 국내 오지도 아닌 병참지 역할을 하기에 가장 이로운 지위에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아국이 전체로서 대동아공영권의 맹주로서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조선만 위한다는 조선의 특수성보다 전 동아시아적 견지로 보는 조선의 역할이 추출 입론되고 시시적변하는 현하 국제정국에 처하여 1억 국민은 일체로 조선의 북방 수호의 중요지대인 것과 부채로 치면 중핵 사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반 유감없는 준비를 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역사로 보아 모든 해결은 항상 대륙에 이어진 것이다.

〈출전 : 柳光烈 「北方守護와 朝鮮의 地位」, 『朝光』 1942년 4월호, 37~43쪽〉

#### 4) 대동아전쟁의 성전 의의

##### 1.

대동아전쟁은 이제 남태평양에서 치열 가혹한 결전이 계속되고 8월 1일부터 반도에는 징병제와 해군 지원병제가 실시되어 전 반도는 감격 속에 쌓여있다. 삼가 대조를 봉배한 1억 국민은 한결같이 순국의 정신에 불타고 있는 바이어니와 금후 장기에 걸치어 계속할 피의 결전에 대하여 누구나 깊이 명간(銘肝)할 바는 이 전쟁의 특질과 및 필승의 신념이나, 이하 요(聊)히 금차 대동아전쟁의 특질과 및 도의를 파지(把持)한 아국(我國)에 최후의 필승이 올 것을 밝히려 한다.

첫째 이 전쟁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나 아국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래 몇 번이나 생존을 위하여 국운을 건 전쟁이 있었으며 일찍이 금차와 같은 전쟁은 미증유(未曾有)일 것이다. 일청전쟁(日淸戰爭)은 거만한 노대청국이 자국의 실력에 맞지 않게 조선을 점유하고 이를 엿보던 열강이 조선을 점거함으로 인하여 생길 아국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싸운 것이요, 일러전쟁(日露戰爭)은 러시아국이 만주(滿洲)를 근거로 남하하여 조선을 병탄(併呑)하고 아국을 협위하려함으로 이를 구축배제하려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금차의 미영(米英)은 아국에 대하여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아국민의 수십만의 피를 흘리어 쌓아놓은 만주에서까지 배척되게 하려는 데서 10여 년 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미영에 등을 댄 장(蔣)정권의 가열한 배일이 중일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선시(先是)하여 아국은 이 지구상에 사는 인종으로서 색의 황백을 물론하고 다 같이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여 파리강화회의에서 인종평등안을 주장하였으나 정의를 공립(空念)하는 미영은 이를 일고도 하지 않았으며 1924년에 미국에서는 배일이민법안(排日移民法案)이 정식으로 성립하여 우리나라 사람은 한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지광인희(地廣人稀)한 호주(濠洲)는 영국의 전단(專斷)하에 백인호주주의를 고집하여 황색인종은 한 사람도 들이지 않게 되었고 이렇게 분방(分方)이 막힌 아국이 근면과 절약을 참으며 상품을 만들어 상업입국(商業立國)을 책(策)하자 상업상 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영국은 황망히 오타와회의를 열어서

영국령 각지에 고율관세를 매겨 우리 상품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영국의 사주를 받은 네덜란드(和蘭) 까지도 관세장벽(關稅障壁)으로 이를 거부하고 필경은 아국과 가장 가깝고 가장 특수한 관계가 있는 중국에서도 배일이 격심하며 사적(史的) 인연으로 40년 동안 혈한(血汗)으로 지반을 쌓은 만주에서까지 배일이 심하여 나카무라(中村) 대위 학살, 만보산(萬寶山) 조선농민 구축에 이른 것이니 이상의 계열로 보아 그들이 책동한 바는 종시일관 우리 국민을 도서(島嶼)와 반도 속에 질식시키려는 악의를 포장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간다면 우리 국민은 상업은 쇠하고 인구는 감소하여 쇠망의 일로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사람으로서 절대로 생존에 필요한 것은 토지인데 시(試)하여 그 상태를 보건대 우리 제국은 내외지를 합하여 67만 평방 킬로(일본만은 38만 평방 킬로)로 일본의 인구밀도는 1평방 킬로미터에 200인 가까운 숫자이요, 이를 영국령 캐나다의 918만 평방 킬로에 900여만 인구와 동 호주에 770만 평방 킬로에 700만 인구는 모두 1평방 킬로에 거의 1인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여하히 우수할 지라도 이 숫자로만 보아서는 저들보다 200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들의 부를 필적할 수 없다는 소박한 이론이 추출된다. 200배의 노력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더욱 경제에 노력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자력(資力)이나 기타요소와 배합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만이 유일한 요소도 아니나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자에게 같은 역량 및 근면으로는 대항이 불가능할 것도 일(一) 응인(應認)치 않을 수 없다. 히틀러는 말하기를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권리는 자기의 소속한 토지를 경작할 권리요, 가장 신성한 희생은 사람이 그 토지를 위하여 흘리는 혈조(血潮)이라” 하였다. 물론 이 말도 유일한 진리도 아니요, 아국의 대전 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바이다. 소도(小島), 반도(半島)에 질식을 감수하고 쇠퇴를 좌대(坐待)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바이다. 이 때문에 고(故) 신도호(新稻戶) 박사는 악악(諤諤)한 언론으로 미영의 조야(朝野)와 논쟁하였고 아 조야의 지사는 국제의 교의(交誼) 또는 전쟁의 난국임을 고려(顧慮)하여 노골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민족영원의 발전을 위하여 유언을 써두라’는 논의가 빗발같이 날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국은 이 미영의 공식정책에 대하여 감연(敢然) 생존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다.

둘째로 이 전쟁은 대동아방위의 전쟁이다. 황송하옵게도 선전대조(宣戰大詔)에는 “이와 같이 추이(推移)할까 동아안정에 관한 제국 적년(積年)의 노력은 실(悉)히 수포(水泡)에 귀(歸)하고 제국의 존립 또한 정히 위태에 빈(瀕)하였다. 사태는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제국은 이에 자존자위(自存自衛)를 위하여 결연히 일어나 일체의 장애를 파쇄할 수밖에 없다”고 훈(訓)하시었다. 근(謹)히 배(拜)하건대 ‘제국의 존립이 또 정(正)히 위태에 빈하였다’ 함은 우리 제국의 이 싸움이 생존을 위한 전쟁임을 훈시하신 것으로 배찰되고 ‘이제 자존자위를 위하여’라 하심은 방위전쟁임을 훈시하신 줄로 배찰되는 바이다.

서상(叙上)과 같이 우리 제국은 일청(日淸), 일러(日露)의 양 전역이 모두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방위전쟁이었거니와 이번 역시 대동아를 방위하려는 방위전쟁이다.

그러나 적측인 미영을 보건대 영국은 대서양 중에 놓인 잉글랜드(英蘭)라는 한 섬으로부터 지중해,

홍해를 지나 인도(印度), 말레이(馬來), 미얀마(緬甸)를 차례로 잠식하고 200년 동안 집요한 동아침략은 홍콩(香港)을 흡반(吸盤)으로 7천 리 장강(長江)을 유니온잭으로 뒤덮었고 미국은 입을 열면 정의와 인도를 말하나 미 본국이 개국 이래 부절(不絕)한 침략으로 13주로부터 48주가 된 것은 물론

알래스카(러시아에서 매수) 1867년, 하와이 1898년, 필리핀(比律賓) 1898년, 괌섬 1898년, 츠와이라 1899년, 니카라과 조차(租借) 1916년, 파나마 수원조차(水源租借) 1923년, 스우닌섬 1924년 등이 모두 침략의 소산(所産)이다. 다시 저들의 동양에 대한 태도를 보면 침략 이외에 도의를 주장함은 볼 수 없으니 영국이 싱가포르 군항을 건설할 때에 원해상(元海上)이던 아메리는 “영국해군이 동양에서 타의 제약을 얻어 자유로 활동할 수 없게 되면 영국은 마치 빈혈병자 같이 일복일쇠약(日復日衰弱)의 일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하면 영국이 금일의 성대를 보게 된 것은 동양의 자원을 이용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원을 이용하여야만 영국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자본의 활용에 의하여 세계를 웅비(雄飛)할 수 있다. 동양은 영국의 보고(寶庫)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싱가포르군항이 절대필요하다.”

그는 해양은 영국이 빈혈병자가 안 들리게 하는 흡혈의 대상으로 보고(寶庫)인 것을 절규하였고 영국의 제국주의를 대표한 시인 키프린은 그의 화이트피플스·버튼에서 백인은 의례히 유색인종을 지배하듯이 구가(謳歌)하였다. 또 미국의 마한 대좌(大佐)는 미국이 중국시장을 점령하여야 할 것을 역설한 후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주의는 중국에 대한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시장에 자유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하였고 1925년 1월 미국해군성 특별위원회의 보고에는 “미국의 대외국책은 하나도 침략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나(?) 그러나 문호개방주의를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의 지지를 요한다.”

또 해군대학교감 타우싱 대좌의 말에는 “미국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제조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들은 미국민의 생활유지의 목적으로써 이익(益益) 널리 다대(多大)한 가치가 있다. 이 문호개방을 위해서는 공세적 해군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입론(立論)은 알래스카의 매수, 하와이, 필리핀(比律賓)의 점령 파나마운하 개통 이래 미국 해군의 태평양집중 미드웨이, 웨이크, 괌, 마닐라 등 수많은 진격로를 만들며 동아시아의 유일한 안정 세력인 아국을 에이, 비, 씨, 디 포위선<sup>54)</sup>으로 위협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관한 주의이다. 그러나 이에 대조하여 아국은 일찍이 남북 아메리카나 구주에 대한 일편의 야심이라도 가진 일이 없었고 오직 동아시아를 방위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 그러므로 금번의 전쟁도 전혀 동아시아 방위를 위하여 일어난 전쟁이요, 이 방위를 위해서는 아국의 대방침으로 도조(東條)수상은 ‘홍콩, 말레이 반도는 다년 영국령이었던 위에 동아시아화란(東亞禍亂)의 기타가 되었으므로 제국은 철저히 화란을 구제할 뿐 아니라 이들을 대동아시아방위의 거점이 되게 한다.’ 하여 방위지점을 확보하고 방위전쟁을 계속할 것을 말하였다.

### 3.

셋째로 이 전쟁은 해방을 위한 전쟁인 것이다. 이 전쟁이 종래에 동아전체가 미영의 착취하에 놓였던 것을 해방하는 전쟁임은 물론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1일에 결행된 신중국(新中國)에 대한 치외법권

54) 당시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America), 영국(Britain), 중국(China), 네덜란드(Dutch)를 가리킨다.

철폐와 조계환부(租界還付)와 함께 동아의 일각에 새로이 미얀마(緬甸國)가 탄생한 것이다. 중국의 불평등조약은 실로 과거 일세기에 걸친 미영의 체제하에 성립된 것이니 중국의 국부 손문(孫文)은 40년 동안 이를 위하여 분투하였고 그가 북경 법국병원(法國病院)에서 영원의 여정(旅程)에 오를 때에도 이를 유촉으로 남긴 것인데 이번에 아국이 대동아전 진행중 솔선하여 이를 결행함은 이 전쟁이 해방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버마는 50년 동안 영국의 질곡하에 신음하던 바 이번에 신국가로 탄생하였다. 그 신생한 선언에는 “버마 민중은 아세아를 결합하는 아세아의 지도자를 대망하던 중 드디어 이를 대일 본제국에 발견하였다. (중략-원문) 전민중은 결속하여 영미적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목적하는 일본육군과 공히 돌진하였다.” 하여 이번의 해방전쟁인 의의를 밝혔고 또 미국령이었던 필리핀도 불원에 신국가로 탄생할 것이며 인도도 아국과 협력하여 신생의 기운이 점차 성숙하여 찬드라 포스 씨는 지금 크게 활동 중이며 네덜란드령(蘭領)이었던 동인도에도 도조 수상은 원주민에게 금년 내로 정치에 참여케 할 것을 언명하여 불원에 중앙참의원이 실시케 되리라 하니 이것도 모두 이 전쟁이 해방을 위한 전쟁인 까닭이다.

#### 4.

넷째로 이 전쟁은 이해(利害)를 떠난 것이니 1938년 12월 22일 중일전쟁 처리에 대한 고노에(近衛) 수상 이야기 중에는 동아신질서 건설의 공동목적으로 선린우호(善隣友好), 공동방공(共同防共), 경제제휴(經濟提携)를 말하고 “일본이 중국에 구하는 것은 구구한 영토가 아니요 전비(戰費)의 배상이 아님을 자명하다.” 하였고 그 후대 동아전쟁이 발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얻은 후에도 태국(泰國)의 성장조성, 미얀마의 신생, 필리핀의 신생, 인도의 신생에 진력(盡力)하고 방위지점만 점하여 영토나 배상 등 전리(戰利)에 착복한 전쟁이 아님을 보임은 종시일관(終始一貫)한 대의이다. 연전(年前)에 폴리쉬어 씨는 아국의 동서문명의 장점을 흡수 성장시킴에 대하여 칭양(稱揚)한 후 “아시아를 짊어진 자여! 아세아 제국(諸國)이 일찍이 귀국에 준 것에 대하여 이를 백배하여 보수(報酬)하기를 자랑하다 지금은 노예가 된 여러 나라의 현자로부터 얻은 석일(昔日)의 교훈에 대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반례(返禮)로 하라” 하였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중국의 유교와 인도의 불교를 동점에 의하여 받아들여서 금일의 문화형성이 일요소를 삼았거니와 금일에는 미영의 노예가 된 지나와 인도에게 자유의 반례를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문화를 옹호하는 전쟁이다. 세계의 모든 식자(識者)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영의 금권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는 모두 아국의 동아의 고유한 도덕과 배치되는 바이다. 이 전쟁은 동양의 고유문화를 옹호하여 그 안전과 명랑성으로 세계문화에 공헌하려는 도의세계건설의 전쟁이다. 히틀러는 독일국민 및 전구주민에게 불세비즘 방어로 구주의 고유문화를 옹호할 것을 주장하였거니와 대동아전쟁은 동아의 고유문화 옹호에 있음도 큰 사적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서상(敍上)과 같이 그들의 야망, 침략, 정복에 대항에 생존, 방위, 해방 문화건설에 있는 이 전쟁은 필승할 것을 확신하고 또는 최종의 승리가 빛나기까지 매진할 바이다.

(출전 : 柳光烈 「大東亞戰爭의 聖戰意義」, 『朝光』 第9卷 第9號, 1943년 9월, 35~38쪽)

## 11. 유억겸(俞億兼)

### 1)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을 취하자(戰必勝功必取)

태평양전쟁의 원인은 1941년 12월 8일 오전 11시 45분에 환발(渙發)하옵신 대미영선전(對米英宣戰)이 완미(頑迷)한 미·영 양국이 과거 5년간 끊임없이 제국의 확호부동(確乎不動)의 국시인 대동아공영권 건설 성업을 은현간(隱顯間)에 방해한 데 있다. 그중에도 근년에 완미한 미·영 양국이 주동이 되어 소위 ABCD 대일(對日)포위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불손하게도 경제단교와 무력위협으로써 제국에 도전하여 오던 중 더욱 최근에 이르러 미국은 비열하게도 영국과 통모하여 제국의 공정한 주장을 무시할 뿐 이라. 과거 8개월간 일미회담 중에 제국의 은인자중(隱忍自重)하는 태도를 멸시하고 제국에게 중국과 프랑스령(佛領) 인도차이나로부터의 무조건 전면적 철병, 남경국민정부의 부인,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조약의 파기를 무리하게도 요구하였다. 종래로 완미한 미국이 이와 같이 가공적(架空的) 원칙론을 고수함은 제국의 실력을 모르고 자국의 강대함을 자공하는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번 태평양전쟁은 국제체제에 있어 국가주의적, 국수주의적,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세계질서의 건설을 목적하는 일본·이탈리아 등 현상타과의 추축(樞軸)국가와 세계주의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추축국가를 대항하는 미·영 등의 현상유지 국가의 투쟁전이다. 완미한 미영 양국은 현상을 유지하고 저 말할 때 마다 반드시 인도주의, 박애주의 하면서 동야 10억여 민중의 공존공영을 불관(不關)한 태도로 자국에 유리한 원칙론을 묵수(墨守)함에만 급급하여 오던 터로 지난 해 4월 이래의 일미회담 중에서도 미국은 항상 비겁하게도 영국과 통모하여 이기적 원칙론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전쟁은 대동아공영권 내의 10억여 민중의 공존공영을 위한 대동아해방의 성전으로 만주제국, 중화민국 국민정부, 태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등 대동아의 여러 나라가 제국의 성전 목적을 철저히 양찰(諒察)하고 적극적 협력을 함으로 과거 100여 년간에 누적한 미영인화삼제(米英人禍芟除)<sup>55)</sup>에 제국이 예정한 대로 단호 매진하고 있으니 동야 천지는 머지않아 다시 광명이 와서 동양인의 동양의 석일(昔日)의 자태로 환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전에 참가한 우리 반도 2천 4백만 민중들은 ‘정의필승’의 신념과 ‘철석(鐵石)’의 결의를 견지하고 미동도 말고 질서 정연히 각자의 직장을 전장으로 알고 성전완수에 전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충성용무(忠誠勇武)한 제국 육해공군 장병은 완미한 미영 양국을 응징코자 진공(進攻)한 지 수순여(數旬餘)에 적의 근거지를 차례차례 통쾌하게 격파 또는 점령하고 멀리 하와이(布哇)를 기습하여 정예를 자랑하던 미국 태평양 함대를 삼시(霎時)<sup>56)</sup>에 재기불능의 대타격을 주고 또 영국 동양함대를 도처에서 격멸하며 말레이(馬來) 루손(呂宋), 보르네오 등지에 적전(敵前) 상륙을 단행하여 파죽지세로 적군을 섬멸하며 홍콩(香港)을 함락시키고 곧이어 마닐라를 점령하여 세계의 이목을 놀라게 하고 시시각각

55) 삼제(芟除) : 풀을 깎듯이 베어 없애 버림.

56) 삼시간. 극히 짧은 시간동안.

이 적격한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 태평양의 제해권,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 총후의 1억 국민은 이렇게 전선을 대동아전면에 걸친 전고(前古) 미증유의 대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와 별로 다름없이 안온히 각자의 생업에 정진하고 있게됨은 물론 국은이거니와 ‘전필승공필취(戰必勝攻必取)’의 신념에 불타는 충용초쌍(忠勇焦雙)<sup>57)</sup>한 육해공군 장병의 신고(辛苦)에 의함이다.

그런즉 총후국민은 항상 군관의 시조(施措)를 절대 신뢰하고 일치단결하여 신도(臣道)실천, 직(職)을 함으로써 직역봉공(職域奉公), 출정장병을 고무격려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장래할 어떠한 곤고만난(困苦萬難)이라도 결연히 극복하고 태평양전쟁의 최후승리를 단정코 획득하여야 한다. 태평양전쟁은 제국의 성쇠 뿐이라. 동아의 용체(隆替)<sup>58)</sup>, 세계의 평화가 달려있으니 총후국민은 일역일심이 되어 여하한 장기전이라도 대비하여야 한다. 연칙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 ‘유단대적(油斷大敵)’이라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긴장한 가운데에서 상부상조하여 안으로는 ‘황태(荒怠)를 상계(相戒)’하고 밖으로는 ‘사악(邪惡)한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여 ‘필승불감’의 신념을 견지하고 ‘헌신보국(獻身報國)’을 항념하고 ‘성전목적’을 관철할 결의를 구현하여 ‘동아 영원의 평화를 확립하여 제국의 광영을 보전할 일’을 촌시(寸時)라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절규하노라.

〈출전 : 俞億兼 「戰必勝功必取」, 『朝光』 第8卷 2號, 1942년 2월, 110~112쪽〉

## 12. 이묘묵(李卯默)

### 1) 구주전쟁과 미국의 책동

제1차 구주대전(구주대전)의 장(場)인 댄직 자유시(自由市)와 이와 파란(波蘭, 폴란드)을 연결하는 소위 ‘폴란드 지대’를 둘러싼 히틀러 총통 대 영·불·폴 외교전은 1939년 8월 22,3일 경을 계기로 하여 백열화(白熱化)해진 것이다. 주(駐) 베를린 영국대사 헨드슨의 8월 23일 히틀러 왕방(往訪)을 위시하여 세 차례의 회담, 그 뒤를 이어 독·폴란드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보려는 영국의 외교, 영·불의 공동선언으로 위협, 폴란드와 독일과의 직접교섭, 심지어 무솔리니의 중재까지도 수포화(水泡化)하고 급기야 히틀러는 “독일로 불인(不忍)할 폴란드의 도전과 독일 동부에 존재한 혼란 상태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폴란드 응징의 장도(壯途)에 나선 것이 9월 1일의 일이었다. 영·불은 즉시 8월 25일 폴란드와 체결한 상호원조조약에 기하여 9월 3일 오전 11시 기한부로 독일의 폴란드 군사행동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정한 시일에 독일의 회답이 없으므로 영국과 프랑스는 9월 4일 하오 5시 대독일 선전포고를 하였다.

57) 무쌍(無雙)의 오기로 보임.

58) 성하고 쇠함.

이것이 제2차구주대전의 폭발이었다.

독·폴란드전 당일(9월 1일) 정말(丁抹, 덴마크)이외 6개국은 즉시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미국은 영·불이 선전포고한 2일후 즉 9월 5일에야 국외중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비록 미국정부로서는 중립을 성명하였으나 미국인의 대독(對獨)여론은 제1차 구주대전과 달라 영국이나 프랑스의 미국 내 선전필요의 여지가 없이 연합국 측으로 동정이 전경(全傾)하게 되었다. 이 동정의 화염이 교회교단으로 부녀구락부로 신문잡지로 영화로 라디오로 미국의 한끝으로부터 다른 한끝에 지연(芝延)하게 되었고 이 동정의 결정(結晶)인 현금, 식료품, 의료품등을 대서양 월편(越便)으로 보내는 동시에 소위 영국의 전아(戰兒)를 데려다 미국가정에서 양육하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로 원영(援英)의 초보(初步)를 내놓기는 영·불의 대독 선전포고 1주년을 맞은 작년 9월 3일의 일이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의회에 향하여 “미국은 함령(艦齡)초과된 구축함 50척을 영국에 양도했고 이 대상(代償)으로 가라비안해에 있는 영국해군 근접지 약간의 조차주(租借州)를 99년 기한으로 하고 획득하였다.”고 성명하였다. 이것이야말로, C. S 폴레스너(미국인, 선박항해소설로 1938년 테이트 문학상 수령자)의 말과 같이, 미국으로 영국에 제공할 수 있는 최진품(最珍品)의 하나였다. 그 대상(代償)으로 미국은 뉴먼든펜드에서 영국령 ‘귀에나’까지의 4,500리 간에 열재(列在)한 영국령 도서(島嶼) 8개소를 미 해군 근접지로 99년간 조차한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작년 12월 27일 “노변한담(爐邊閑談)”으로 격월(激越)한 반(反)추축국 연설을 감행했고 적극적 원영(援英)의 급무(急務)와 민주주의 옹호를 강조하며 미국이야말로 “민주주의제국의 중대한 병기창”이 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고 민중에게 절규한 것이다. 이 노변한담의 뒤를 이어 올해 1월 10일 대통령은 “미국 국방축성법안”(속칭 원영무기대여법안(援英武器貸與法案))을 하원에 제출하여 약간의 수정으로 상·하 양원에 통과되고 3월 21일 대통령의 재가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된 것이다. 그 법의 내용의 대체는

1. 대통령은 미국국방상 절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정부를 위하여 각 장관(육·해군 기타) 관할 하에 있는 병기창, 공장, 조선소에서 각종 국방기재 제조할 사(事).
2. 그 제조한 국방기재를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우(右) 외국정부에 공급(供給)할 사(事).
3. 우(右) 외국정부를 위하여 각종 국방기재에 시험, 실험, 수선, 장비, 재제(再製), 기타 조치를 하여 그 기능을 회복케 한다.
4. 기재(器材)에 대한 국방정보를 우(右) 외국정부에 송달할 사(事).
5. 우(右) 외국정부에 여하한 국방기재든지 수출함을 허(許)하며 그 공급에 대한 지불 및 배상방법은 여좌(如左)함.

영국, 중국의 군수품 주문을 미국정부의 주문형식으로 하여 생산군수품은 차입형식으로 영국에 주어 전쟁 종료 시 미사용 또는 불과손된 물자는 그대로 미국에 반환하고 사용한 또는 파손된 군수품은 물품으로 반제(返濟)할 사(事).

6. 외국대여 무기의 가격이 13억 불 이내면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하고 그 액수 이상의 경우면 승인을 얻을 사(事).
7. 본법은 194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단 상·하 의원의 다수결로 하시(何時)든지 이 법을 폐기할 수 있음).  
그리고 우(右) 무기대여법 실시에 필요한 예산 70억 불이 상·하 양원에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은 구축함 50척의 양도로 영국의 연일 격침·상실되는 선박의 극소 일부를 보충하게 하며 따라 우(右) 원영(援英)무기대여법으로 적극적으로 자매 민주주의국인 영국을 원조하기로 되어있으니 이제 당면한 큰 문제는 무기연송(連送)에 필요한 선박문제였다. 미국은 1917년 대전시에 생긴 간첩법(間諜法) 제2장에 의하여 올해 3월부터 미국 입항중인 독일·이태리 양 교전국의 선박을 위시하여 중립국 제(諸) 선(船)까지 강제상선(強制上船), 감시, 억류, 징발을 결행하게 되었다. 이 편법과 수단으로 원영(援英)정책실행상 불가결한 선박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중·남미 제국(諸國)을 권유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급기야 4월 26일 화부(華府-워싱턴)에서 '아메리카주 제(際) 경제고문회의'를 개최하고 거기 참석한 범미 21개국 대표는 '재(在)미주(米州)항만의 외국선박징발이용'을 결의·결행한 것이다. 이 안(案)이 결의되던 순간 중남미 제국에 독·이태리 선박 160척이 입항 중이었다고 한다. 미국 자국항에만도 올해 3, 4월 중 재항한 외국선박이 이태리 선박 2,008척 독일 선박 2척, 덴마크 선박 39척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몰수하고 6월 6일 '외선박(外船舶)징발법'이 제정되어 미 자국 상선은 물론, 아메리카주 상업에 종사하는 외국선박감시제도 정하여 □□ 프랑스 선박 12척(9만톤), 유고슬라비아 선박 15척(7만5천 톤)도 □□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는 무기가 있다! 신품 갈 선박이 있다. 그러나 사처(四處)에서 맹렬히 활동하는 독일 유보트(잠수함)은 어찌하나? 하는 매우 □□하고도 델리키트한 문제가 남았다. 이 문제는 미국의 항용 고조하는 '해양자유'의 원칙에 기인하여 대서양중립초계제도 시행으로 해결을 짓기로 한 것이다. 초계(哨戒)(영어로는 페트롤)는 "해상의 일정한 수역 중 침략행위를 하는 함정유무를 살펴보는 것이다."고 정의하고, 대전(大戰) 초에는 300리 흑점(或點)에서는 천리 내에 초계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원영(援英)물자 수송에 완전·원만한 방법이라고는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도 믿지 아니하고 이 이상의 방법이 오리라는 것을 오래전에 '노변한담'으로 말해둔 것이다.

미국의 국책은 마침 제1로 히틀러가 서반구 정복의 수를 연장하거나 혹은 이를 위협하는 때는 필요에 의하여 수하지역(水河地域)에서도 적극적 반격을 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또 그의 제해권 획득기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반항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미국공격의 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떠한 지구의 일각에서라도 히틀러주의를 배제하는 일이 최대의 요무(要務)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해양초계정책은 대영물자수송원조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물자수송에 좀 더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될 일



이요, 또 앞으로 될 것이다. 누구나 순시(瞬時)라도 용기와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운운으로 역력히 미국의 밟고 나갈 전도를 암시한 것이다.

4월 25일 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중립초계실시의 이유로 첫째는 미국 시민의 투자와 권익이 있는 곳에 독일함(獨逸艦)이나 비행기 공격의 위협이 증가된다는 것과 둘째로는 미국조차용 해군근거지가 최근에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누구나 이것을 그 표기가(表記價)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독일해군최고당국자는 이 소위 중립초계는 대영공급(對英供給)확보책으로 적성행위인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담한 경고를 발하였다.

1. 독일은 전시 금제품(禁制品)을 전쟁지역에 운수하려는 미 선박을 실력으로 배제함.
2. 미국이 초계제를 기용(起用)하면 독일은 실력으로 이 적성행위를 제거할 권리가 있음.
3. 무허가로 항해하는 중립국 선박은 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무경고 격침함. 운운이었다.

미국정부 최고당국자들은 이 경고를 전후하여 '히틀러 타도'와 '해양자유'를 고조하여, 국내인심을 선동하며 '국가비상시선언'을 발표하여 미국국방 최대한도의 강화를 절규한 것이다. 미 정가(政家)의 논조가 얼마나 감정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 육·해군장관의 연설의 일부와 소위 '무제한 국가비상시선언'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 스티븐슨 육군장관의 5월 6일 밤, 라디오 방송요지

독일의 대영봉쇄는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여 영국은 미국에서 가는 군수품 수취에 곤란을 느낄 뿐 아니라 식료품의 부족을 벌써 느끼기 시작한다. 오늘의 독일은 1917년 동양(同樣)으로 무모(無謀) 비인도주의적 수단으로 대서양상 미국 통상자유를 박탈하여 미상선의 항행(航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봉쇄구역을 서반구에 확장하여 미 상선의 출입까지를 금지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국제법을 유린하고 그 야만행위를 서반구까지 □□하려고 한다. 여차한 독일의 무모활동 앞에는 미국으로 오늘까지 취해온 대영원조는 불충분하다. 군수품의 영국도착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해군력을 즉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 눅스 해군장관의 5월 7일 연설의 요지

우리는 방금 무서운 위협에 빠져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길은 영국의 해군력 보급에 있을 뿐이다. 나치스의 승리는 우리가 아는 문명에 최악의 다침을 의미하며 영 해군의 멸망은 즉시 우리 해군을 고립시키어 일방으로는 우세한 독·이태리 연합함대를 대하게 되고 타방으로는 강한 일본해군의 위협을 받게 된다. 미국은 영국해군력을 결코 멸망케 할 수 없다. 만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합선의 교(橋)'가 없어진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보라.

위 두 장관의 연설의 뒤를 이어 지난 5월 27일 '노변한담'으로 미국의 무제한국가비상시를 여좌(如左)히 선언했다.

1939년 9월 8일 구주전쟁 발발의 사태에 비(備)하는 의미로 제한부 국가비상시상태가 선언되었고 그 선언에 의하여 미국 국방충실을 위하여는 평시에 가진 제한 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 강

구해왔다. 그러나 그 후, 정세는 추축국이 당초 천명한 전쟁목적에 머물지 아니함이 명백해졌다. 즉 추축국가는 현존한 민주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공(亘)하여 복멸(覆滅)하고 그 육·해·공군의 저항력을 파괴시킨 후 전 세계의 인종과 경제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증대해가는 위협에 대하여 미국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진실로 위험한 일이라고 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연한 대책으로 안전보장을 위하여 미국과 서반구는 오늘까지의 평화사태를 탈출하고 서반구에 대한 여하한 적성세력의 포위 혹은 미국영토 내지 사회에 외국인 스파이의 약탈적 침입일지라도, 서반구에 대한 침략적 기지 설치와 동양(同樣)으로 이것을 즉시, 또 결정적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든든한 무력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프랭클린 윌슨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무제한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한 것을 선언한다. 이 무제한 국가비상사태는 서반구 어떤 부분에 대한 경우든지 모든 침략을 의도하는 행위, 혹은 위협을 언제든지 배격할 수 있는 기초위에 미국의 육·해·공군이 나란히 민간의 국방력을 건설하자는 것을 선언함이다.

이 선언과 병행하는 것은 고도국방과 경제적 전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준(準)전시시대에 처하면서도 작년 10월 강제징병법을 채용하여 전미(全美) 1,600만인이 등록되었고 목하(目下) 80만의 신병이 군사훈련을 받고 앞으로 적어도 200만의 육군병원(陸軍兵員)에게 최근대적 장비를 할 터이며 1946년에 완성을 목적으로 태평, 대서양 함대를 위한 40억 불의 예산으로 2,000척의 건함(建艦)계획이 진행 중이며 공군도 비행사 훈련이 연 2만 명이요, 연산(年産) 5만대의 항공기 생산력을 갖게 할 계획으로 적극적 군비확충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 군비가 얼마큼 신속하게 대규모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국방비 예산에 표현된 숫자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년도 예산이 16억 불에 비하여 금년도 미국 국방비는 160억 불(邦貨 800억 원)이라 한다.

이 방대한 군사예산을 원활히 소화시키기 위하여 작년 5월에 국방회의와 국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계획과 경제동원의 스타트를 군호(軍號)하였다. 국방자문위원회는 국방의 계획화와 그 지도의 최고위원회요, 이외에 대통령 직속인 O.P.M. 즉, 생산관리국이 있어 군수품의 우선적 생산을 명하고 또 필수품의 징발과 구입, 가격통제의 임무에 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협의의 국방을 맡은 것이나 그 외에 긴급 국방조정국(O.E.M.)이 있어 그 속에 원영부(援英部), 중앙관리부, 정보부 3부를 두어 대통령 관방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직속된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경제국방국이라는 것이 있어 성질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나 실제로는 각성(各省) 각보(各補)국방기관의 활동을 통일하며 연락을 원활케 하는 강력 중앙종합기관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경제국방국은 미국무역위원회, 대외투자, 크레디, 선박, 국제통신, 특허권 및 재미외국자산 등 경제전의 무기 일절과 그 활동을 통일, 조정,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년 4월 10일 덴마크, 노르웨이(諾威)를 비롯하여 독일에게 점령된 제국(諸國), 다음으로 독일·이태리, 마침내 아국(我國) 재미(在米)자금동결까지도 이 기관의 소속인 것이다.



지난 7월 7일 미 대통령 루즈벨트는 의회에 특별교서를 보내 미국해군부대가 같은 날 정오에 아이슬란드도(島) 영주(迎駐) 상륙한 지(旨)를 발표하였다. 그 교서의 요지를 보면 미 해군은 같은 섬에 있는

영국수비대를 보충교체하기 위하여 진주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과 동도(同島) 수상 요한슨 씨 간에 완전한 양해가 있어 되었다. 미국정부는 나치스 세력이 대서양의 전초지점을 서반구 공격용 해·공군 기지로 점령한 위험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이 섬이 나치스 손에 들어가는 경우면 제1로 그린랜드, 북미대륙의 북방지역이 위협에 폭로가 되고 제2로 대서양 북방항로가 위협에 빠지고 제3으로 원영(援英)무기수송로가 위협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동도(同島) 진주로 대서양의 주권소재 현황에는 하등 변경이 없겠다는 것을 언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 내외에 일대 센세이션을 야기한 행동으로 미국신문은 전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지지했다. 뉴욕·헤럴드·트리뷴지는 “이번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치는 순연(純然)한 방위적 행동으로 동적(動的)방위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번 행동으로 서반구 동적 방위 단순히 그린랜드와 북미의 보호뿐 아니라 의회와 국가가 미국보전의 기초인 ‘대영군수품의 불단(不斷)의 류(流)’를 확수(確守)할 절대적 필요한 방위인 것을 명백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이번 대전 당초에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아 일반 국제공법에서 말하는 중립보다도 더 엄중한 중립법을 기용(起用)·시행해온 나라다. 그러면 여태까지 취해온 미국의 정책-구축함 양도, 영해군기지 조차, 외국선박 징발, 원영(援英)무기대여, 초계, 외국자금동결, 아일랜드 진주 등-을 보아 과연 미국은 중립국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없지 않은 것이다. 설혹, 미국이 아직도 국외중립국이라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행동의 구실과 변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미국은 이 류(類)의 중립을 지켜 계속해갈 것인가 또는 참전을 할 것인가가 매우 흥미있는 문제이다.

우리 평론계의 한 분으로 요네다(米田實)는 (참외교시보(參外交時報) 제88호)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결정된 ‘해전과 중립국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 제6조절(條節) “중립국은 여하한 명의(名義)를 가짐에 불문하고 교전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 군함, 탄약 또는 일체의 군용재료의 교부(交附)를 불득(不得)함.” 하는 조목하에 미국의 구축함 양도, 초계, 대영무기대여 등은 명연(明然)한 비 중립국의 소유요 국제공법의 권위자의 일인(一人)인 오펜하임의 ‘국외중립국의 공평의무’ 정신에 불합치된다 하여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소위는 일 교전국의 것이라 주장하며 기타 대다수의 사람도 미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벌써 참전했다고 단정을 내린다.

미국으로는 대독전쟁의 정식유고(正式有告)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종류의 또는 어떤 수단·방법으로의 원영책(援英策)이든지 간에 미국의 국책이요, 미국의 제일선 방위요, 전 인류의 문물제도와 이상을 옹호하는 천부의 사명으로 믿는다. 물론 이것은 영국의 문화가 같고, 피가 같고, 정치이상이 같다는 데서 생기는 동정-극도의 맹일적(盲目的) 동정-인지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대(對)영·미인의 태도는 극히 감정적이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인의 독일에 대한-좀 더 협의적으로 말하면 히틀러에 대한-태도가 극도의 감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 자연적 감정을 싸두르고 표면에 내세운 이론화한 대(對) 제2차 구주대전 미국의 국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물론 영·미공동선언의 8개 조목이다.

이 공동선언에 논급(論及)하기 전에 미국의 변칙행동을 변호하는 법칙근거를 탐구하자면 제1로 켈록·뿌리안 부전조약(不戰條約)<sup>59)</sup>에 있다 한다. 즉 만일 부전조약국 중 한 나라가 이 부전조약을 범할

때는 다른 조약국 등은 그 침략국에 대하여 평상시의 중립법 이행의 의무가 없어지고 침략을 받은 나라에 재정, 물질, 군수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1934년 9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던 만국국제법학회의 '부전조약해석'문으로 미국국제법학회에서는 시카고대학교 교수 겸 해군성법률고문인 쾨시우 라잇 씨를 위시하여 고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 보는 상선 호송이나 상선 무장까지라도 전쟁의 행위는 아니요, 오직 국제법에서 말하는 또 미국이 제1차 대전 시에도 시행한 무장중립이라 한다. 이 무장중립은 1780년과 1800년에도 '자유항해와 자유통상'의 원칙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과연 참전하는가? 미국 내에 참전까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선전재료를 돌려왔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의 몇 가지를 들면 히틀러의 승리는 앵글로색슨의 문화와 세계의 문화에 최종막을 닫는 셈이다. 영국의 해군이 파멸되면 히틀러의 공격의 위협이 즉래한다. 민주주의를 옹호하자. 폭력을 배제하자, 타도 나치즘, 영국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운다, 영국원조를 철저히 하자 등이다. 대전의 대세가 연합군 측이 심히 불리하던 한동안은 히틀러가 미국을 내습(來襲)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매우 불안을 느끼는 점이 있으며 이로 각 언론기관이나 육해군 측 전문가들의 이론(異論)도 분분하던 것이다. 대중용이요 간단하나마 으리벌쓰·다이제스트 제38권 228호에 실린 조안 티 폴런의 '히틀러가 미국을 내습할 수 있을까?'하는 논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전적으로 독일의 미국상륙작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돌리고 따라서 이런 류의 송구(悚懼)로 참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옹호하자!”는 표어는 미국참전여론 선동에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하나 여기에도 극단 고립파로는 박박(駁撲)이 없는바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5월 23일 '미국제1협회' 뉴욕대회 석상에서 린 벅은 고립파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민주주의 옹호'로 참전까지 유도하는 정책을 제지 없이 논박한 것이다. 그 연설의 요지를 들면 첫째, 미국의 운명은 미국 자신이 결정할 것이고 구주대전과 연결해 생각할 것은 아니다. 둘째, 구라파야 어떤 나라가 지배하게 되든지 그로 인하여 그 국민을 대서양 피안으로 파견할 것은 아니다. 셋째,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넷째, 국외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민주주의를 상실할 것은 아니다. 운운으로 철두철미 불간섭, 미국제일, 국내민주주의 옹호론을 고창한 것이다.

“영국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슬로건은 무엇보다도 유력하게 대중의 지지를 받은 국책이다. 조지 갈루프 박사의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故) 체임벌린 영국 수상과 히틀러의 뮌헨회의 직후, 미국대중의 55퍼센트가 무기, 비행기, 기타 군수품을 전쟁이 터지는 경우면 영국으로 수송하자는데 찬성했다고 하리만큼 원영책(援英策)만큼은 극단의 고립파를 제한 외에는 다 지지하는 것이다. 원영(援英)이라는 것을 보통 양키의 특징이라고 보는 '이기적' '타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오늘의 미국인의 대영원조의 기분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사갈 돈이 있든 없든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 값을 물게 되든지 못

59) 1928년 8월 27일 프랑스의 파리에서 영국·미국·프랑스 등 15개국에 의하여 체결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체결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A.브리앙과 미국 국무장관 F.B. 켈로그가 주도하였다 하여 '켈로그-브리앙조약(Kellogg-Briand Pact)'이라고 한다.

되든지"이라는 정신으로의 원영(援英)이라 한다. 이런 정신의 고취를 목표로 한 유명한 여류시인 빈센트 밀레이의 "영국은 이제는 도서(島嶼)가 더 없다"라는 시는 대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전 대통령 후버 씨도 원영(援英) 찬성자의 일인으로 고립파와 참전파와의 중간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지난 6월 29일 방송연설에 의하면 "(1) 영국과 중국에 모든 원조를 주라, 그러나 전쟁지역에 군대는 파견 말 것. (2) 서반구 방위를 위하여 충분히 무장하라, 그러나 무장이 완성되기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3) 평화와 전쟁의 결정권을 의회에 주라. (4) 미국은 타국의 자유를 강제하지 말라. (5) 미국 국경 내 자유개선에 노력하라. (6) 미국은 평화회의에 출석할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7) 미국은 전쟁권외에 있어 확보할 수 있는 무비(無庇)의 실력으로 평화회의에 임하도록 하라"가 소위 후버 씨의 '미국불패상태유지의 7개 조목'이다.

오늘 미국 위정자들의 진로는 어디로 향하여가는 것인가? 그들은 영국을 원조하기 위하여는 전쟁이 아닌 그 외 모든 방법을 다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국내 전시체제도, 무기대여법도, 외국선박징발령도, 방대한 국방비도 외자동결(外資凍結)도, 미도(米島) 진주도 다 기성사실로 오로지 원영(援英)에 매진할 따름이다. 원영(援英)을 더 한층 충실히 함에 따라 히틀러의 경도(傾倒)를 하루바삐 촉진시키려고 할진대 호송도 상선 무장도 중립법 개정도 필연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독일이 인견(忍見)하면 별 문제나, 실력으로 배제하려고 한다면 이제 생기는 정미(正味)결과는 전쟁 그것 뿐일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하나 루즈벨트가 밟는 이 길은 고(故) 윌슨의 제2기 임선(任選) 후의 길과 방불(彷彿)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국민을 부지불식간에 유도하여 중립에서 무장중립, 무장중립에서 전쟁이라는 보조로 점진적으로 인도하되 최종계단에 와서는 일을 벌써 기성사실화 하여 국민이나 의회가 달리 피할 길이 없게나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미국의 참전목적은 어디 있을까? 이것은 물론 지난 8월 14일 대서양에서 영·미가 발표한 공동선언에 있다 할 것이다. 즉 (1) 영·미 양국은 영토적 기타의 확장을 인정치 않는다. (2) 영·미 양국은 관계 제국민의 자유의사에 합치 아니하는 영토적 변경이 생(生)함을 욕구치 아니한다. (3) 영(英)과 양국은 모든 국민이 그 생존의 정치형태를 선택하는 자유로운 권리를 존중하고 폭력으로써 박탈당한 그 주권과 자치권이 □□됨을 원한다. (4) 영·미 양국은 모든 국민의 기(其) 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과 원재료를 균등한 조건으로 획득할 보증을 줌을 당연한 의무로써 협력한다. (5) 영·미 양국은 모든 국가가 그 경제적 이익과 개인과 사회의 안전보장을 목적하고 완전한 경제적 협력을 실행하기를 요망한다. (6) 나치스 독일의 폭정을 타도한 후, 영·미 양국은 모든 나라에 자국이 영토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도를 부여하고 동시에 모든 국토의 인민은 협위(脅威)와 결핍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을 여(與)함과 여(如)한 평화수립을 희망한다. (7) 이러한 평화는 모든 인민으로 하여금 공해(公海)와 대양을 하등의 간섭이 없이 항해할 수 있는 기저가 됨을 요한다. (8) 영·미 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현실적 동시에 정신적 이유도 폭력의 이용을 포기할 것임을 확신한다. 육해공의 군비가 자국의 국경 외에서 협위를 주고 또한 쓸 만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 □□되는 □□□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영·미 양국은 일반안전보장의 광범 차(且) 항구적 제도의 확립까지 여기(如期)한 국가의 준비철폐는 불가결임을 믿는다. 영·미 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으로부터 준비의 압도적 중하(重荷)를 경멸케 하기 위하여 실제적 수단을 원조하고 조성하고자 하는 바다.

이 공동선언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상적이다. 미국의 위정가의 진정한 고백을 구할 수가 있다면 아마도 좀 더 현실적이에요, 좀 더 이기적일 것이다. 커렌트·히스토리 올해 6월호에 기재된 커씨의 「미국의 장래」라는 논문은 미국이 왜 싸워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제일 정직한 대답이 있는 것 같다. 즉, '팍스 아메리카나!' 상언(詳言)하면 옛날 로마 평화시대가 있었고 다음 대영제국의 평화시대가 있어왔으니만큼 이제는 미국 평화시대의 서광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의 논조에 의하면 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패권자는 독일도 영국도 아니고 미국이라 한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명이라 한다. 서반아(西班牙-스페인)는 무적함대가 깨진 후로 대영제국의 평화시대가 왔고 이 대전에서 독일을 물리치는 미국은 세계에 '팍스 마리카나'를 확립하는 미국이라 한다. 그렇다면 해상 영·미 양 거두의 회견은 '팍스 브리태니카'를 '팍스 아메리카나'로 전환하는 일종 풍자적인 세사적(歲史的) 회견은 아니었는가?

1941년 10월 4일 밤

(출전 : 李卯默 「歐州戰爭과 米國의 策動」, 『春秋』 第2卷 10號, 1941년 11월 48~57쪽)

### 13. 이성환(李晟煥)

#### 1) 시국이 구하는 청년

(1939년 8월 17일, 경성중앙방송국에서 방송한 것. 씨는 현재 대동광업주식회사(大同鑛業株式會社) 중역과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業專門學校) 이사의 직에 재직함)

시국이 구하는 청년은 무엇이나, 즉 현하 시국은 어떠한 청년을 요구하느냐, 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순서로서 그러면 현하 시국이란 어떤 것이냐를 먼저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국을 누구나 다 말하되 비상시국이라고들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시험하여 그러면 비상시국이란 언제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하겠으나 진작 이렇다고 하는 명확한 대답을 할 사람이 많지 못할 줄 압니다. 비상시국이라는 그 소리가 몹시 높아지기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滿洲事變)이 돌발하였을 때부터라고 보겠는데 정작 일본의 비상시국은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 비상시국이었지마는 그것을 일반 국민으로서는 무의식한 중에서 등한(等閒)히 간과(看過)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만주사변이라는 계기를 당해서 비상시국이라는 색채가 지극히 선명하게 인식되었고 더구나 재작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에서 돌발한 '지나사변'<sup>60)</sup>에 부닥치면서는 가장 강하게 또 맹렬하게 일반국민도 이것을 감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비상시국은 아직도 그 서막이요, 그 전주곡에서 지나지 못함

60) 중일전쟁.

니다. 참말로 비상시국은 이 앞으로 일층 더욱 긴박(緊迫)하고 심각하여 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사이 다소라도 국제관계를 주의하여 보고 있는 사람치고는 넉넉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의 일본과 오늘날의 일본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로 말하면 일본이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었고 하고 싶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여도 좋을만한 때였습니다. 즉 진퇴와 작사(作事) 여부가 일본의 자유에 있었습니다.

만주사변이라는 사변의 한결음을 내어댈게 된 것은 일본 그 자체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극동으로 하여금 화평의 세우(細雨)가 오게 하든지 전쟁의 폭풍이 불게 하든지 그 열쇠를 일본이 홀로 그 수중에 부르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10년이 못된 오늘날에 있어서 일본의 처지는 어떠한가. 비야흐로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열국의 군비(軍備)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1942년은 각국의 군비계획이 끝나는 위기의 세차(歲次)<sup>61)</sup>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직접으로 항일중국을 원조하면서 무기와 군자금을 공급하는 제3국이 있으니 그것은 영국이요, 소련방이요, 미국이요, 프랑스인 것은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중심의 적으로 삼고 군비를 대규모적으로 확장할 뿐 만 아니라 일본에 대하여 공연하게 포위진(包圍陣)을 형성하고 있으니 방금 일본의 현하 체제는 자진해서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 체제에 서고 있으며 주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는 지금 대변화의 기운을 잉태한 격랑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주대전(歐洲大戰)은 재물로서 4천여만 원을 소비하고, 인간으로서 800만 인을 죽이고, 2천만 인을 상처 나게 하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앞에는 그것보다도 더 큰 참담한 비극이 혹은 우리의 전도(前途)에 올지도 모르는 긴박한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 비상시국을 똑바로 인식한다면 일본은 물론 따라서 동양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한 끔찍한 위기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따라서 진실로 국가의 전도를 생각하고 우려하는 사람치고는 송연(悚然)<sup>62)</sup>하여 온 몸에 소름이 끼침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있어서, 이렇게 비상한 시국에 처해서 이렇게까지 긴박하고 심각하여 가는 이 비상시국에 있어서 우리 청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될 것입니까? 혹은 나는 제일선 전장에 나선 병정이 아니니까, 또 혹은 나는 산업 제일선에 나선 총사(總師)가 아니니까, 또 다시 혹은 나는 주방을 맡아보는 가정부인이 아니니까, 나에게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하여도 좋겠습니까? 이 판에 나는 연애나 하자! 나는 결혼생활이나 하자! 나는 알맞은 취직자리나 구하자! 나는 달콤한 소설이나 읽자! 하고 개인문제를 생각하고, 이기주의로 돌아가고, 향락생활에 취하고 있어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청년은 현대의 힘이요, 세기적 책임자인 까닭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미래는 청년의 것이다'라고 하였고, 혹은 '청년은 차대(次代)를 만들고 담당한다'고도 하였습니다. 확실히 청년은 미래를 대표합니다. 청년은 그 생물학적 본질에 있어서 미완성자입니다. 그것은 그 때문에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그 본질은 어디까지 미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완성은 늘 미래에 속한다고 할 수 있

61) 간지(干支)를 따라서 정한 해의 차례.

62) (오싹 소름이 끼치도록)두려워서 몸을 움송그림.

습니다. 이 의미로서 청년은 미래인 동시에 또 '기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 어떤 시대에든지 타당한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공자(孔子)가 선왕지도(先王之道)를 설법하는 시대라든지, 아치카 철학이 '때는 가식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던 사상의 시대는 별문제로 하고 비약적으로 진보된 현대에 있어서는 아니 초비상시국인 금일에 있어서는 청년은 벌써 명일(明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어슴푸레한 미확실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은 금일의 문제입니다. 청년은 현대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야스퍼스의 웅변을 기다릴 것도 없이 독일(獨逸)에 있어서는 또는 이탈리아(伊太利)에 있어서 이미 산 증거로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그러하고 무솔리니가 그러하고 그들은 청년으로서 정권을 잡았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의 비밀 속에는 청년이 있었고, 그들의 비밀은 청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청년에게 구호(口呼)하면 청년은 '네'하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에게 구호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시대를 지도할 수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의미에서 현대는 청년의 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 개의 꿈이 아니라 뚜렷한 금일이요, 분명한 금일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현하의 이 긴박하고 심각한 비상시국의 담당자도 청년이요. 수급자도 청년이라고 하기에 조금도 주저하려고 아니합니다.

보시오. 독일이 대전이후에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전후의 부흥사업을 성공시키는 도정(途程)에 있어서 독일청년들의 활약이 얼마나 큰 공적을 내었던가를! 그들 독일청년의 부흥제일선운동은 전 독일을 일개의 불도가니 속에다가 집어넣어 애국심, 애국열이라는 홍염(紅焰)속에서 막 작열하는 것과 같은 관(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 독일을 단결시키고 독일혼을 앙양(昂揚)시키었으며 그들은 불편부당, 오직 우리는 독일국민이요, 독일청년이라는 입장에서 우렁차게 외치되 '독일청년 된 자는 강건하고도 진실하며, 정력이 왕성하고, 독일의 혼이 충만치 않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규율을 존중하고, 근면정려(勤勉精勵)하여 권태를 느끼지 말아야만 비로소 국가의 융창(隆昌)을 향하여 공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것을 믿고 있었으며 동시에 이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실행의 결과로서

- 첫째, 통일독일의 건설목표를 시현하였으며,
- 둘째, 사상난(思想亂)에 대하여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하였으며,
- 셋째, 사회적, 도덕적, 질서회복에 노력하였으며,
- 넷째, 국민적 단결에 생기를 취입(吹入)하였으며,
- 다섯째, 민족적 각성을 강도(強度)로 촉진하였으며,
- 여섯째, 직무를 존중하고, 각인의 의무를 반드시 다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 일곱째, 절제, 검약하여 국부(國富)를 존중하게 하였으며,

여덟째, 근면, 노력하여 국부를 증진하기에 정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 청년이 진두(陳頭) (중략)<sup>63)</sup>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개개인의 생활도, 일체가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개인주의로부터 국가전제주의(國家全制主義)로! 이것이 혁신의 근본적 원리입니다. 개인적 자유사상을 국가적 통제주의(國家統制主義)로, 소아적(小我的) 이기주의를 멸사봉공적(滅私奉公的) 대아주의(大我主義)로 고치

63) 원문 1쪽 누락.



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도의 자유가 있고, 전체적 논리가 생기고, 전체적 미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통의 화석화가 아니라 부단한 창조와 발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국방관념을 바르게 가지는 청년이러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전체 지역은 그 운명이 공동합니다. 장고봉(長鼓峯)의 총소리라든지, 노몬한의 비행기라든지, 태평양의 군함이라든지 인도변경(印度邊境)의 말발굽소리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동경(東京)이나 경성(京城)의 심장부를 아프게 건드리고 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지역적 공동운명하에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잘산다'는 원칙이 있을 것뿐입니다. 전선에 나서 총을 메고 싸우는 것만이 병정이 아니라 우리도 장개석(蔣介石) 적군을 치고 있고, 우리도 장고봉에서, 노몬한에서, 싸우고 있었고, 우리도 중국의 신중양정부 수립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동아 전체민족의 운명이 공동하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참된 국방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대륙으로 발전할 줄 아는 청년이러야 되겠습니다. 대륙은 부름입니다! 질실(質實) 강건하고 근검정려의 우리 청년을 대륙은 얼마든지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 안에서만 1년에 41만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자제를 자르치려는 교육열은 나날이 불길같이 팽배하여 갑니다. 이러한 융창한 시절에 처하여 우리는 대륙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만주는 곧 당신의 젖집이요, 북지(北支)는 곧 당신의 이웃마을입니다. 대륙! 대륙! 대륙이라는 크고 넓은 무대 위에서 일만지(日滿支)의 열혈청년들이 손에 마주 잡고 세기적 대활극을 전개할 광경을 생각하여 보시오. 상상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넷째, 이상과 열(熱)과 성(誠)으로 불타는 청년이러야 되겠습니다.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이상과 협동단결의 정신과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기개는 오직 청년만의 소유입니다. 그것은 청년의 혈관 속에서 뛰고 불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공동방위와 아시아의 공동경제의大本(大本)을 세우고 아시아의 신질서를 건설하여 이때까지 아시아의 제패에 야심을 가졌던 어떠한 열강의 나라이라도 단호일격(斷乎一擊) 하여버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지도할 만한 주인이 되겠다는 고원(高遠) 또 웅대한 이상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하랴' 하는 열혈과 정성으로 불타는 정신으로써 일상생활화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절약할 줄 아는 청년이러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 힘을 낭비하여서도 안 된다. 물질을 낭비하여서도 안 된다. 집안에서 놀고먹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활동하거나 휴식하거나 무계획이 여서는 안 된다.' 라는 표어를 가져야 합니다. 전시체제하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최후의 하나의 물건까지 남기지 않아야만 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발명심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묘미를 주었으니 절약은 부(富)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니와 보호할 부조차 없을 때에는 부를 창조하여야만 됩니다. 부라는 것은 돈뿐이 아니요 '재물과 힘과 시간'입니다. 물자는 물론이거니와 수력, 전력, 인간의 체력까지를 보호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절약입니다. 독일민중의 표어 중에는 '눈의 절약을 하자, 쓸데없는 것을 보는 것은 눈의 낭비이다. 밤늦도록 앉아있는 것도 눈의 낭비다! 눈을 절약하여 언제든지 건강을 보전하라. 입도, 귀도, 온 몸뚱이가 다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상시국에 처할 우리들의 참고재료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눈앞에 전개된 흥아대유신(興亞大維新)의 산 역사적 건책(建策) 위에 우리 조선청년은 유력하고 위대한 존재로서 역센 가치를 발휘하여 과연 동아의 만년초석이 될 만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경애하는 조선청년제군이여! 제군은 세기적 책임을 달성키 위하여 위대한 사명을 자각하여 우리 국

가와 사회가 간절히 기대(期待)하는 바에 등지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출전 : 李晟煥 「時局이 求하는 靑年」, 『愛國大演說集』, 1939년 8월, 155~165쪽〉

## 2) 임전애국자의 대사자후!! 애국의 지성과 이 기회

이성환(李晟煥, 安興晟煥)

나는 먼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을 말하렵니다. 나의 이 고백은 여러분의 가슴속과 상통될 시기에 이르렀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용의(用意)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일한병합' 30여 년 동안에 형식상으로 조선 사람이 일본제국신민이 되어 있었으나 진심으로 나는 일본나라의 신민이다, 천황의 적자이다 하는 참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자각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당국에서 하라는 일을 하기는 하면서도 정성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온 일은 없었습니다. 일장기를 들고, 천황폐하만세도 부르고, 기미가요(君が代)<sup>64</sup>도 부르고,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도 낭독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감격에 넘치는 국체(國體)관념이라든지, 정확한 국가의식이라든지, 확호한 신민도(臣民道)의 파악에서 발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득이한 복종으로 불투명, 불명백한 세월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지나사변'<sup>65</sup> 이래의 현상을 보더라도 조선인은 현실이 변해가는 그대로 그때 그때에 겨우 겨우 추수하였고 진심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정신적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종래의 세계사적 관념에 있어서 착오된 고찰에 구애(拘碍)되어 가지고 우리의 진로에 확호한 이념과 신념이 서지 못하였던 까닭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군소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동경하여 보기도 하였고, 때로는 공산주의에 의한 계급국가건설을 책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일본제국과 떨어져 보려는 심리와, 감정과, 운동이 잠행적으로 부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제하의 구미(歐美) 제국주의적 침략국가군들의 식민지정책이 예외도 없이 모두가 착취화, 노예화시킴에 있다는 학문과 사실을 배우고 하였기 때문에 일한병합의 근본정신과 그 세계사적 사명과, 인류사상에서 상상조차 못한 위대한 생명을 솔직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던 까닭이외다.

이것은 솔직한 우리들의 과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후로는 군소민족의 독립적 생존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지역적 대국가의 존재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는 광역경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에 있어서는 대일본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공영권 건설을 하지 않고는 동아 제민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컨대 조선의 과거에 있어서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병립시대와 같은 정치나 경제 체제를 가지고 금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잘 알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소민족주

64) 일본의 국가(國歌).

65) 중일전쟁.

의는 대국가주의하에 섭리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민족주의적 대국가주의라야 되고, 소국가주의는 대지역 국가주의라야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적 문로주의로부터 광역적 블럭주의로 비약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고도한 국방을 건설한 국가의 국민만이 배개를 높이 베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도 국가, 둘도 국가를 주장합니다. 그러되 그는 자유주의적이나 개인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라 만민익찬체제(萬民翼贊體制)의 신질서의 국가라야 됩니다. 일본은 종래부터 인민은 신도(臣道) 실천의 봉공의 길이 있고 국가는 1인의 포식자를 없이하고 1인의 기아자도 없이 하라는 국체와 대어심에 즉한 자연스러운 지도 원리와 기본정신이 있습니다, 요사이 신체제라는 말이 밥먹는다는 말의 다음쯤 가리만치 되어있으나, 그러나 신체제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체제부터 고쳐가지고 그것을 신념화하고 그것을 실천화하는 것이 신체제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총기립 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여 총부리를 마주 대고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의 청년은 조국의 승전과 명예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애국의 지성을 경도(傾倒)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전에 승하면 살고 패하면 못산다는 진지하고도 엄숙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1등 국민으로서 고도한 문화수준에 올라서서 살아가야 되겠고 그러려면 고도국방국가를 건설하여야 되고, 고도국방국가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의 확충과 국방의 충실을 철저히 하여서 일본이 세계를 제압하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 1억 국민이 일심하여 싸움을 이기도록 진충보국(盡忠報國), 결사의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적 결전에 최후의 승전을 하자면 우리는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즉 전시하 국민으로서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이며, 전시하 국민의 결심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전체가 자기 1개인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전시목적을 철저히 파악하여 국가민족을 위하여 일신(一身)일가(一家)를 바치고 나서는 기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는 전혀 일신일가를 잊어버리고 인간으로서 최후의 생명까지를 바치되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돌아보지 않고 인간의 정혼(精魂)의 최후 최대한도를 다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고하고도 또 역세계 싸우는 마음을 충후국민의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천하에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일개의 이해타산으로부터 일체를 탈각하여 참으로 국민적 자각과 국가적 기백으로 일어서는 것이 전쟁 기분(氣分)인 것인데 이러한 때에 있어서 자기 혼자 좋으면 좋다고 하면서 암취인(闇取引)<sup>66)</sup>이며, 매점(買占), 매석(買惜) 등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개인에게 오는 위험을 면할 수 있을까 라는 고식적 생각과 도피적 망동을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전쟁기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여 동양영원의 평화를 확립하며 나아가 세계 신질서 건설에 기흥(寄興)함이 되고 만방으로 하여금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정신하에 모든 문화를 재건하려는 이 위대한 이상과 위업을 완수하려는 제일의 출발의 제일보가 '일한병합'에 있었다고 하면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역사적 사명

66) 암거래를 뜻함.

은 세계사적 공헌에 있어서 위대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선이 일체가 되고, 1억이 일심이 되어서 동아의 지도국가로서 핵심민족으로서 용감한 보무(步武)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숙명과 시대적 요청이 거기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선일체의 세계사적 사명은 복잡한 세계정세와 동양의 풍운이 급한 이때에 제회(際會)하여 바야흐로 그 근본원리가 투명하여진 것입니다. 성전완수를 위하여 지고지승(至高至崇)한 애국지성을 경도하지 않으면 안 될 공동한 운명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기분을 강대화하여 반도와 산하를 무장화하고 반도의 민중을 의용화(義勇化)하여야 할 긴급절박한 감이 강하게 가슴을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불평도 불만도 요구도 다 그만두고 오직 제1선 전사와 같이 생명을 바치고 싸운다는 결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장소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나는 특히 당신들과 같이 열렬한 정열과 굳센 실행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대체 국가가 없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국이 망한 뒤에는 문학도 예술도 없고 상업도, 공업도, 농업도, 생에 대한 희망도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위(四圍)의 정세가 각각(刻刻) 핍박하여 좋건 나쁘건 하여간 국가흥망 국민사활의 분기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라는 대기치를 들고 나서서 곳곳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있어서 제일 힘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역시 우리들 청년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뒤집어 보아도 그러하거니와 목전의 사실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열정 많은 청년만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고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현재의 세계의 청년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나서 같은 세기적 호흡을 하는 조선청년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일어나서 나가자. 이 길 저 길에 헛갈리지 말고 오직 하나인 국가주의 아래에 나가자. 이 기회에 일어나서 진실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기백이 불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백! 이 정신이야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라하니 한다.”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추수와 망종은 굴욕이다. 자발적 용맹이 있어야 합니다. ‘하라고 그러니 하여볼까’ 하는 것과 ‘옳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목숨을 바치더라도 기어이 하고야 말겠다’는 것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천양 의 차가 있는 것입니다. 위급존망지추(危急存亡之秋)에 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진 역사상의 위인 청년들과 같이 우리도 이 흥망의 분기점에 일어서서 동아신질서의 건설,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의 전사가 되고 애국의 이상신념에 불타는 우국의 청년이 되어서 귀중한 희생을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직역봉공(職域奉公)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직책에 매진하라는 의미이지만 실업가는 돈만 벌고 학자는 다만 연구만 하는 것이 유일한 봉공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하다면 대학교수나 천만장자나 할 것 없이 몸을 일개 병졸의 처지에 놓고 총검을 들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우리나라는 충성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금일 국방을 병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상하가 진실로 싸운다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총전 총후이란 말이 있었지만 전선에 나선 사람과 국내에 있는 사람사이에 그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마음에는 현재 총전도 총후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반도강산의 무장화와 2천 4백만의 의용화를 부르짖고 나선 까닭입니다. 돈도 내놓아라, 힘도 내놓자. 물질도 공급하자 최후의 생명도 내놓자는 것이 임전대책보국운동의 실천요강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신념과 이 운동에서 우리나라는 실천과 행동은 당국은 물론, 일본인 전체가 이해하

고, 협력하여 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메이지유신 전의 일본은 국내통일을 급히 하기 위하여 민족주의를 고조하여 일본적으로 대화혼(大和魂)으로 굳게 하는 시간이 있었으니 그 예의 습성을 섬나라 근성(島國根性)이니, 배타적이니, 아량이 협소하니 하는 비난도 있었으나 금일은 일본자체의 사태가 변하였습니다. 만주사변 전이 아니오, 지나사변 전도 아닌 펍 커다란 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벌써 일본적으로만 갖춰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국책이 시현하는 바와 같이 동아 공영건설은 몹시도 급한 과제가 되어있습니다.

조선인으로 하여금 공동운명에 처하여 일역일심이 되게 하여 동야의 맹주는 내선일체의 1억의 국민 이다라고 확실히 인식하고 제민족을 지도하는 원리원칙하에 핵심체제를 추진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은 대륙경영과 동아공영권건설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절대적 필연성과 숙명성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이 운동은 역사적 요청이며 시대적 사명이며 국가적 명령이라고 결론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호한 결심으로 용왕매진하기를 기다립니다.(박수)

〈출전 : 李晟煥(安興晟煥), 「臨戰愛國者의 大獅子吼!!!, 愛國의 至誠과 此機會」, 『三千里』 第13卷 11號  
1941년 11월, 38~42쪽〉

### 3) 타도 영미침략주의

도라보건대 인류는 오랫동안 지극히 불공평한 세력권형(權衡)과 지극히 부자연한 국제제약 밑에서 천부의 성능을 억압당하여 왔고, 자연의 요구가 질오(桎梏)되어 왔습니다.

일즉이 침략과 식민으로써 대제국을 건설한 앙그로삭손은 압박과, 유린과, 착취와, 고로(苦勞)과, 노예화로써 토착 민족에게 군림하여 인간이 인간을 구사(驅使)하는 수단으로서 위협과 회유와, 동갈(嗚)과, 기만과를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 쓰고 있섰든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악독한 수단 방법은 인간이 동물을 질드러서 부러먹는 때에 쓰는 수단이었엇건만 앙그로삭손 민족은 원시적 이민족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통치하여 혹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동물에 대한 수단을 인간에게 돌려대고 적용하였든 것입니다. 저간 그들은 이 버릇이 자라고 자라서 함부로 상대도 몰나 보고 세계인류의 발상지오, 또 세계인류의 문화와 행복과를 공헌한 원천지인 동야천지와 동야민족에 대하여도 이 상투수단의 독아와 마수를 내밀어 때로는 헤를 날넘거리고, 때로는 꼬리도 흔들고, 때로는 니발을 드러내고 으르릉대기도 하고 있섰든 것이니 건방진 수작도 분수가 있지 안는가. 하물며 우리 일본에게 대하여서 그 소지천만(笑止千萬) 배창자 앞은 일이다.

그들은 국제적 협조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유다야 독점금융재벌을 배경으로 한 미영 제국주의의 발달은 사상적 간책과, 경제적 농락과, 군사적 협위를 가지고, 구라파를 침략하고 이어서 아세아를 침략하기 시작하여 동방 제민족의 대부분은 영불미 등의 속령이 되였고, 그러치 않은 것으로 오직 일본 하나를 제한 외에는 유형무형으로 어느 세이에 영미인 제국주의의 지배세력하에 제압되었든 것입니다.

동아는 그 동안 물질로 정신으로 영미인 제국주의에게 침략된 바 되어서 동아인의 동아라는 옛 면목은 찾아볼 수 없이 되었습니다.

금일 저들 침략자가 고도의 생활수준과 향악적 생활을 질겨워하고 우월감의 만족한 미소를 띠울 때에 동아 10억의 민중은 무지와 빈곤과 쇠망에 빠져 있지 안는가.

우리가 만일 이 이상 더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착취와 제압을 맘대로 하도록 하여 영미인 제국주의적 침략의 윤철(輪軸)하에 바스러지게 된다면 동아인의 전도에는 희망도 광명도 없이 오직 거세(去勢)와, 쇠약과, 멸망 이외에는 아모 것도 없고 암흑한 돈네루의 전도는 지옥을 접속하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天)은 결코 우량 민족을 어러죽고, 굴머죽이기 위하여 이 지상에 출현시킨 것은 결코 안입니다. 우리는 단연코 생존과 발전의 길을 천하의 정의에 의하여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미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동아를 돌려와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적마쳤든 물건을 실력을 가지고 정의와 의분으로써 도로 빼아서 와야 할 큰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미를 중심하였든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 침략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체제를 타도 격멸하고, 진정한 도의적 신질서에 의한 세계를 건설하지 아니하면 금후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5년 전 '일지사변(日支事變)<sup>67)</sup>이오 금차 티지고야 만 대동아 성전(聖戰)입니다. 이것이 회천(回天)의 성업(聖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루스벨트나, 차, 칠은 입을 열면 평화애호국가와 침략호전국을 분류하여 말하되 전자는 선이라 하여 영미가 그것이요, 후자는 악이라 하여 일본과 밀 추축국(樞軸國)이 그것이라고 하면서 그 권선징악의 책임과 실력이 영미에 있는 듯이 작정하고 또, 세계의 경찰권을 영미가 가지여야 되고 군비축소는 일독이(日獨伊)만 하고, 관세 통상 자원분할 등은 영미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그야말로 영미양식에 의한 세계지배를 항구화하여 보라는 배짱 좋은 꿈을 싣고, 지난 8월 중순에 영미 양 거두는 군함 웰스호를 타고 독일 잠수함의 그물눈코를 피하여서 캐나다(加奈多) 북방연안 바다 위에서 소위 양상(洋上) 회담 8개조의 원칙을 밀약하고 바로 옷출대고 있었지 않았는가. 금반 일미(日米)교섭에 있어서도 소위 태평양원칙론을 고집하였으니, 그들의 원칙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전번 구주대전 이후 벨사이유조약이라는 영미 중심의 구질서에 의하여 세계의 영토와 자원을 가장 불합리 불공평하게 분할하여 천혜의 대부분을 영불미가 점령하고 그 잔여의 소부분을 추축국가군에 제공하였든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자원을 일층 부익부하게 강화하자는 것이 소위 원칙 원칙 하는 그들의 원칙입니다.

사자도 큰 소 한 마리를 먹고 나면 4~5일간은 한가안면(閑暇安眠)하지만 온순한 목장 속의 양이라도 배가 고으면 두터운 송피(松皮)를 씹는 것이니, 그러면 이때에 사자를 평화애호자라고 하고, 양을 가르쳐 침략호전자라고 하는 원칙론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방약무인 오만무쌍함이 이에서 더할 이 어데 있으랴.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건국 불과 150년밖에 못되는 미국이 감히 오만불손한 태도로 제국을 포위도전 하다가 과연 개수일촉(鎧袖一觸)에 동양함대가 운산무소(雲散霧消)된 꼴을 보라. 도리혀 철없는 요술쟁의 실수를 가이 없이 생각합니다.

---

67) 중일전쟁.

이번의 대동아전쟁에 있어서는 물론,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벌써 결정적 대세인 것은 현하 각각으로 보도되는 대첩에 의하여도 알 일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타도 영미침략주의의 세계 신질서 건설의 성공임과 동시에 대동아공영권의 확립, 지나사변의 완전 처리, 또 내선일체의 완수도 되는 것이니 박구어 말하면 내선일체 일역일심, 이것이 핵심체가 되어서 비로소 동아의 재건이 되고, 세계 신질서의 확립이 되는 것이니 금차 전쟁에 있어서 국가정신 통일상 반도 2,400만의 임무가 지극히 중대한 것을 알고 묵묵히 역사의 시현하는 방향으로 매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박수)

〈출전 : 李晟煥 「打倒英米侵略主義」, 『三千里』 1942년 1월호, 52~54쪽〉

## 14. 이원영(李元榮)

### 1) 고이소(小磯) 신(新) 총독론

고이소 총독은 착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저는 전임 총독 미나미(南) 각하가 세우신 방침을 답습하겠습니다. 미나미 전 총독이 입안·선명하신 방침 형태의 내용을 정비하고 충실히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겸손을 보이고 있다. 아니, 이는 총독이 통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포부를 솔직하게 표명한 것이리라. 일단 그를 한 번 만나 밝게 빛나는 그의 눈빛을 접하게 되면, 도무지 다른 사람이 세운 방침을 답습하고 그 내용의 정비와 충실만으로 만족할 것으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큰일을 해서 반도에 큰 족적을 남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평론가들은 고이소 장군에 대해 펜을 잡으면 예외 없이 1935년 조선군사령관 시절에 이미 ‘조선의 호랑이’로서 각 방면에서 주목을 받았다는가, 1938년 7월 육군이라는 무대에서 떠났을 때, 세간에서는 호랑이가 우리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천하의 주목을 받았다는 등 총독의 면모가 다소 호랑이와 닮았다고 해서 그가 비범한 존재임을 표현했다. 그러나 내가 착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독으로부터 어떤 큰일을 할 것만 같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가 호랑이와 닮은 사나운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낀 것이 아니었다. 총독은 올해 63세라고 하니 이미 왕성하게 일할 나이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척무(拓務)대신 시절의 그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온몸에 투지로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처럼 넘치는 의욕을 갖고 이곳으로 온 이상, 과거 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척무대신 시절에 조선과는 적지 않은 인연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통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웅대한 구상을 짜고 확고한 자신감과 포부를 품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가 군인 정치가로서 화제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1931년 육군성의 군무국장 시절이다. 그해 9월 18일에는 만주사변이 발발했고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전체주의로 이행하는 가교 역할을 한 역사적 중대 의의를 갖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군무국장의 지위는 무겁고 따라서 군인으로서 아마 그에게 딱 맞는 시대였다. 그 뒤 조선군사령관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고 1년 뒤 히라누마(平沼) 내각의

척무대신, 또 요나이(米內) 내각의 척무대신으로서 정치무대에 등장했을 때도 그가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대동아전쟁하에서 조선의 지위가 국방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2년 뒤의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공영권(共榮圈)의 중핵체로서 조선의 지위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때, 조선총독에 취임한 그는 이제야말로 그의 역량을 유감없이 구사·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상응하는 일터를 얻은 셈이다. 이번이야말로 그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고이소 장군은 통이 크고 정치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이것은 고이소 장군을 올바르게 표현한 말일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치 기질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정치 기질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개념을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의 개념에서 보자면, 정치가 기질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사실 과거에는 입이 거친 평론가들은 고이소 장군이 집무실에서는 안락의자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모습과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는 미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취해서는 베개 삼아 눕는 미인의 무릎, 술에게 깨어서는 묘당천하(廟堂天下)를 쥐는 권력”이라는 말로 고이소 장군을 비꼬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의 정치가 기질이라는 말의 개념은 정치가 기질이라는 말을 듣는 당사자를 적어도 칭찬하는 내용은 아니다. 정치가, 혹은 정치가 기질이라는 개념에 대해 나는 종래의 견해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종래에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치가란, 정치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란 그 사람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한 것이지만, 나는 정치가는 정치가란, 정치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의 일관된 목표를 갖고 걸어온 사람, 즉 이상과 견식을 가고 걸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고이소 총독의 정치가 기질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이상과 견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정치가인가, 아니면 권모술수에 능한 이른바 정치가 기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그동안 고이소 총독이 걸어온 정치활동이나 그의 인격이 자연스레 이 판단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다. 그가 일신의 이해보다는 이상을, 비근한 정권욕보다는 견식을 중시하는 사람임을 그의 과거가 여실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고이소 총독을 진정한 정치가, 진정한 정치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고이소 총독은 어떠한 일관된 이상과 목표를 세우고 걸어왔을까? 그는 취임 이래 거듭 국체(國體)의 본의에 투철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이소 장군이 조선총독이라는 대임을 맡고 난 뒤 새삼 구상한 자신만의 통치이상은 아니다.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고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국시를 현현하고자 하는 이상은 그가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온 이상이다. 그가 팔굉일우의 현현을 정치의 최고목표로 삼고 얼마나 그 실천과 실현에 부심하고 노력했는지는 동양척식회사의 어느 회의에서 시국타개의 정신적 기조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것을 보더라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고이소 장군이 척무대신 시절에도 수차례 국체의 본의와 팔굉일우의 이념에 대해 설파하는 것을 보고 그의 박식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에 감탄하곤 했는데, 동양척식회사에서의 연설을 읽게 되면서 심지어 경외심을 품기도 했다. 신대(神代)시대에 일본이 세계문화의 중심이고 인류문화의 발원이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삼대신칙(三大神勅)·팔신전(八



神殿)의 정신·교육칙어(敎育勅語)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근거를 내세우며 일본정신을 밝히고 팔굉 일우의 이념의 논리를 제시한 이 대연설은 그 어떠한 과학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얼마나 그가 팔굉일우의 국시 현현을 정치의 최고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왔는지는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정치가 혹은 정치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불리기에 충분한 '견식'을 갖고 있을까? 고이소 장군은 군인 정치가들 중에서 가장 통찰력이 풍부한 견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이기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제2차 고노에(近衛) 내각 당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특파사절의 교섭을 받았을 때 그가 제시한 조건을 대동아전쟁이 발발한 오늘날 새삼 떠올려 볼 때,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견식의 소유자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이소 총독은 통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 척무대신에 취임했을 때, 관리들의 독선의 폐해에 대해 크게 경종을 울리고 당시 관계(官界)의 화제를 부른 적이 있다. 이번 총독에 취임해서도 취임 인사에서 관리들의 길에 대해 "일반 민정의 동향을 무시하면서 그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합부로 통계적 숫자의 증가를 노리고 민원을 불필요하게 도발하는" 폐해를 지적했다. 또 산업 시책에 대하여 "이전부터 제창되어온 남면북양(南棉北羊)이라는 표어도 형식적으로 강요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작물의 시행 재배에 고통 받는 자들이 생기는 등, 여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며 경고한 것처럼, 상당히 아픈 곳을 찌른 말이고 대담한 표현이다.

통이 크고 대담하게 말을 내뱉는 것은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감이 없는 자는 대담하게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실행은 더더욱 어렵다. 총독의 견식과 혜안은 취임 전에 이미 조선통치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전부 파악하고, 이를 하나하나 대담하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총독은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동시에 한 번 선택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매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독자적인 통찰력에 의한 메스를 가하면서 그의 소신에 따라 나아갈 것이다. 필자가 이 소론의 서두에서 고이소 총독은 어떤 큰 족적을 이 반도에 남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 이유는 그의 이러한 성격과 역량을 고려해서 육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조선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만주사변 이래 반도의 사상계는 가속도로 호전되었고, 미나마 총독의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 운동과 맞물려 하나의 방향은 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 전환기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2년 뒤에는 징병제도가 실시되고 이에 따른 교육문제도 거론될 것이며 경제공영권의 중핵체로서 산업경제의 획기적 전환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해 이미 군수국장 시절에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훌륭하게 가교역할을 수행한 고이소 대장을 총독으로 맞이하여 그의 진보적인 통찰력과 확고부동의 신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조선은 행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신보사 정경부장)

〈출전 : 李元榮 「小磯 新總督論」, 『東洋之光』 1942년 8월, 2~6쪽〉

## 15. 이창수(李昌洙)

### 1) 필승과 생사를 초월한 정신

#### 1.

지금 전국(戰局)은 바야흐로 중대하다. 레이테 섬을 중심으로 나라의 운명을 내걸고 싸우는 대결전이 벌어져 있다. 적은 방대한 물량과 강대한 생산력만 믿고 반공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 육해군특별공격대(陸海軍特別攻擊隊)의 순충(純忠)에 불타는 젊은 용사들은 레이테만(灣) 상의 적함선(敵艦船)을 부수어 깨뜨리며, 특공공정대(特功空挺隊)는 적의 비행장에 착륙하여 적의 비행기를 불사르고 지상부대의 백인(白刃)은 밀림(密林)의 적진을 날마다 피로 물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공격대 가운데는 반도(半島) 출신의 신취(神鷲)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어, 조국의 번영을 빌면서 오로지 대의에 순(殉)하고 있다는 것은 반도 민중의 영예, 실로 비할 데 없다. 일찍이 우리는 '지나사변'<sup>68)</sup> 당시의 이인석(李仁錫) 상등병(上等兵)을 비롯하여 제일선에서 분전용투(奮戰勇鬪)하다가 장렬한 전사를 한 호국의 영령(英靈)을 다수 내어왔지만 이번 홍안(紅顏)의 청소년으로 육신과 비행기가 한 덩어리 되어 적함선에 육탄돌입(肉彈突入)하여 적을 해저(海底) 깊이 장사지냈다는 무훈(武勳)을 들을 때 국민으로서 어느 누가 감분흥기(感奮興起) 않을 사람이 있으랴, 우리나라는 이들 청춘이 흘린 피로 인하여 길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청년들이야말로 국가의 초석(礎石)이요, 전력의 근저(根底)다. 신명을 돌아보지 않고, 혼연(欣然)히 사지(死地)에 들어가 유구(悠久)한 대의에 사는 순국열혈(殉國熱血)의 청년들이 국가를 수호하고 있는 상 우리나라는 영원히 번영하게 될 것이다. 적이 아무리 그 자랑하는 물량만 믿고 초조(焦燥)히 날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예무비(精銳無比)한 항공기(航空機)가 있고 순국열혈의 청춘신취가 대기하고 있는 이상 적의 준동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 2.

무릇 전쟁에 있어서는 물적, 인적, 영적의 세 가지 요소가 구비해야만 이길 수 있다. 식량 기타 일렬의 병기를 포함한 물적 요소만이 구비하고 인적요소 즉 제일선 병사를 비롯해서 총후(銃後)의 전력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정신력이 박약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것이며 인적요소 혹은 영적요소만 구비하고 물적요소가 부족해서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아국(我國)과 적 미국(米國)의 전력을 비교할 때에 어느 편이 강하고 강한가, 물적 요소에 있어서는 물론 아국보다 적 미국이 다소 우세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적 미국은 반추축(反樞軸) 측의 병기장(兵器廠)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만큼 영국(英國)과 소련(蘇聯)과 중경(重慶)의 장개석(蔣介石) 정권에까지 군량과 군수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적이 태평양전선으로 보내는 물자는 적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자(物資)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 또 그뿐 아니라 태평양전선으로 보내는 물자라 하더라도 필리핀(比島)이나 마닐라군도 사이판에 까지 보

68) 중일전쟁.

내자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송 기타의 불편이 있고 또 격침되는 위험까지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물자가 있어도 마음대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즉 보급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록 물자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태평양전선으로 가져오는 것은 한도(限度)가 있게 된다. 지금 적의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서 악전고투(惡戰苦鬪)하는 것도 말하자면 물자의 보급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요소에 있어서도 적 미국의 총인구는 1억 3,396만 6천여 인이라 하나, 세계 각 지의 전선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평양전선에 배치되는 병력에도 또는 총후의 산업전선에 종사하는 인원에도 자연 한정이 있게 된다. 요컨대 적의 물력이 우리보다 우세하다 하나 실질상에 있어서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며 인적요소에 이르러서는 적의 세력이 우리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결국 최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요소 즉 국민의 정신력 여하다. 물론 물력이나 인적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의 힘이나 인적요소가 피아 간에 서로 균형이 서면 국민의 충성심, 기백, 필승의 신념 같은 것이 전쟁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오늘날 우리 특공대가 하늘로, 육지로, 바다로 적진을 향하여 육탄돌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 둘도 없이 강한 정신력과 만고불멸(萬古不滅)의 충혼(忠魂)을 유감(遺憾)없이 발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진사보국(盡忠報國)의 정신, 열렬한 충백(忠魄), 필승의 신념이 있고서 비로소 필사필침(必死必沈)의 육탄돌격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한명의 병사가 능히 적병 10명, 100명을 무찌를 수 있고 우리 한 개의 비행기가 능히 적의 삼천톤급 전함을 격침(擊沈)할 수도 있는 것이다.

### 3.

그러나 이런 정신은 단지 전선(前線) 장병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선 장병만이 충성스러우며 용감스럽고 총후의 국민이 충성 용맹스럽지 않을 리는 없다. 총후 국민도 필사의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전선 장병과 같이 사생의 생각을 도외시(度外視)하고 진충보국의 적성(赤誠)을 다할 수 있다. 사람은 죽음을 결심했을 때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명이 필사(必死)면 백 명도 당치 못하며, 백 명이 필사면 만인도 당치 못하며, 만인이 필사면 능히 천하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일청일로(日淸日露)의 양 대전 후에서 아의 과(寡)로써 능히 저들의 중(衆)을 이긴 비결도 이 필사의 정신에 있으며 금차 대전에 있어서 중국(支那) 400여 주를 석권하고 교적(驕敵) 미영(米英)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이 필사의 정신에 있다. 국가는 일사보국자(一死報國者)의 해골 위에 건립된 기념탑이다. 그리고 기초의 공고 여하는 곧 탑에 영향(影響)하는 것이다. 허다(許多) 국가의 흥망은 무엇 때문이나, 그 해답도 여기 있는 것이며 대일본제국의 번영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 해답도 여기 있다. 사람은 결국 죽는 물건이다. 인생의 가치란 ……(이하 15줄 판독불가)…… 정신을 본받아 식량증산에 혹은 병기생산에 확산증산에 돌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농민의 수확은 반드시 증가될 것이며 공장 직공의 능률은 배가(倍加)될 것이고 광대의 채광률(採鑛率)도 증진하여 전력은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총후 국민 전부가 모두 결사투입의 돌격대와 같은 진충보국의 정신을 가지고 전국토를 들어 병기창화하는 군은 신념을 가진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의심없이 우리의 것이다. 전선 총후의 1억 동포가 모두 육탄돌격대가 되었다는 정신과 기백으로 나아가고 철화(鐵火)같은 전의(戰意)와 균열한 적개심으로 멸적일로

(滅敵一路)를 향하여 맥진(驀進)한다면 승리의 대도(大道)는 스스로 열려질 것이다.

〈출전 : 李昌洙, 「必勝과 死生을 超越한 精神」, 『朝光』 1944년 12월호, 18~20쪽〉

## 16. 인정식(印貞植)

### 1) 동아권의 경제적 성격과 조선의 지위

전지구의 표면이 결국 네 개의 경제△역으로 분할되리라고 한다.

구주에서는 독이추축(獨伊樞軸)을 중심으로 하는 구주권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권이 성립될 터이며 미주에서는 남북 아메리카를 통일한 미주권역이 결성되리라 한다. 그리고 동아에서는 우리 제국을 선도세력으로 하는 동아의 신질서권이 확립될 것이라는 이론이 금일의 소위 4권역론의 요지가 된다.

물론 이 4권역론은 현재에 도달된 결론이 아니고, 명일(明日)의 세계를 지시하는 당위론이다. 따라서 동아신질서의 실현도 금일에 있어서는 아직 명일의 과제에 속한다.

또 동아신질서의 개념도 국제정세의 급격한 추이에 따라 그의 지리적 내용을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전격(電擊)이 나폴레옹의 조국을 완전히 함락하기 전까지는 동아의 신질서라면 일만지(日滿支) 3국을 포함함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이 일만지 3국을 포함한 지역적 범위에서 다시 확대되어 난인(蘭印)<sup>69)</sup>과 불인태(佛印泰)<sup>70)</sup>, 차진빈(此津賓)<sup>71)</sup>, 호주(濠洲), 영인(英印) 등을 포괄한 동반구의 대부분을 지칭하게 되었다. 지역적 한계가 확대됨에 따라 동아신질서란 술어도 다시 동아공영권의 확립이란 표어(標語)로 확대 전화(轉化)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독자 제군과 함께 구명해 보려는 문제는 이 동아공영권의 경제적 성격에 관해서이다.

동아공영권을 구성하려는 모든 사회와 국가를 본다면 선도자인 일본제국을 제외하고 모두가 아직 농업사회의 계단에 정체되어 있는 후진국들이다. 이 점에서 본다드래도 세계의 명일(明日)을 약속(?)하는 4권역 중에서의 동아권의 특이성의 하나를 엿볼 수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미주권이나 구주권에 포함되는 모든 국가의 대부분이 근대적인 소공업국들이므로 상론할 필요도 없지만 소련권에 속하는 영역도 금일에 와서는 3차의 5개년계획을 통하여 선진공업사회를 급'템포'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공영권을 형성하려는 전 영역을 본다면 오직 우리 제국을 제외하고는 만주국이건 또 남양의 제국(諸國)이건 모두가 후진적인 농업사회뿐이다.

이러한 점은 확실히 다른 3권역에 비해서 동아권이 전체적으로 띠고 있는 특이성의 하나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만이 동아권의 유일한 특색은 아니다. 동아권의 특색으로서 이런 점

69)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말함.

70) 프랑스령 인도네시아를 말하는 불인과 태국을 말하는 뜻함.

71) 비율빈(比律賓), 즉 필리핀의 오기임.

만을 든다면 고찰은 너무도 피상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보담 본질적인 부면(部面)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동아공영권을 운위하기 전부터 또는 이 동아공영권이라는 술어가 조출(造出)되기 전부터 동아공영권에 속하려는 동반구의 모든 영역은 경제의 또는 사회구성의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계통에 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 동아를 포함하는 동일한 계통의 자연조건이란 무엇이나.

첫째로 이것은 서양적인 것 혹은 구미적인 것에 대한 대립적인 견지에서서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를 또는 사회구성을 제약하는 자연적 제관계에 있어서 구미에 대척되어 전 동아권은 공통된 계통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내지의 논단에서도 아직 제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나의 견해에 의하면 동아공영권의 이론은 이러한 경제적 기초의 문제에서부터 보담 본질적으로 토구(討究)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믿는다.

## 1. 동아권의 경제적 성격

첫째로 동아권에 속하는 모든 영역이 대부분 농업사회이라는 점에서 위선(爲先), 동양의 농업과 서양의 농업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그리하면 농업적이라는 점에서 동아권이 특이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의 구성 또 농업생산의 기구에 있어서도 동아권의 농업이 서양의 농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동양의 농업은 그의 경영규모에 있어서 서양의 것에 비하여 너무도 영세적이다. 량성·백 교수-『대지』의 작자 팔·백의 전 남편-의 지나토지이용론에 의하면 지나의 농업에 있어서는 1농가당 평균경작면적이 겨우 1 '에커'도 못되는데 이것이 대체로 6매(枚)의 지편(地片)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1호당 평균경작면적은 겨우 1정(町) 4반보(反步)에 불과하며 내지의 농경규모도 1정 6반보 평균이다. 이것도 물론 수 매(枚)의 지편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서양의 농업을 보라. 여기에서는 1농가의 경영면적이 10정보는 아무래도 넘는다. 경작단위가 광대할 뿐 아니라 이 광대한 면적이 동양서처럼 수 개의 지편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외입적(外込的)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동양농업의 이러한 영세, 분산성에 관해서는 내지의 농촌에 매우 흥미있는 한 이야기꺼리가 있다. 어떤 농부가 들에 나가서 자기의 소유지를 헤여 보고 있었다. 확실히 소유지는 5개소에 있는데 아무리 헤여 보아도 네 곳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남은 한 곳을 찾으려 애썼으나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들에서 돌아오려고 땅 우에 놓았던 농립(農笠)을 들었더니 그 밑에서 잃어버렸던 소유지의 한 필(筆)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장적인 비유일는지 모르지만 동양농업의 영세, 분산성을 말하는 한 '에피소드'로서 흥미가 깊다.

농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분산적일 뿐 아니라 농업의 기술에 있어서도 매우 수공업적이고 수족(手足) 노동적이란 점에 동양농업의 또 한 가지 특이성이 있다. 서양농업은 경운(耕耘)에 '트랙터'를 사용하고 타곡(打穀)과 수확에는 '콘바인'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농업이 기계화되었다. 그러나 동양농업에서는 '개미'와 같이 근면한 농부들이 개미와 같이 땅 위로 기어 다니면서 손과 발로 겨우 '호미'와 '괭이'를 써

가면서 기열(奇烈)한 토지와 싸워나간다. 이와 같은 기술의 차이는 물론 노동능률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1 ‘에-커’당 소맥(小麥)생산에 요하는 노동시간을 본다면 수족노동에 의하는 경우에는 6시간 40분이 소요되지만 서양적인 기계노동에 의하면 겨우 54분이면 족하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농무성의 조사에 의한 수자(數字)이지만 어쩌면 수족노동과 기계노동과의 노동능률의 차이를 뚜렷하게 지시(指示)하는 것이다.

웨! 동양농업은 기계화되지 못하느냐! 이것은 물론 중요한 학문적 문제이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길게 논의할 여유는 없지만 기계화를 조애(阻礙)하는 조건은 자연적 관계에 있기 보담 사회적 제관계에 있다는 것만 간단히 말해두기로 하자.

다음으로 다시 중요한 차이는 서양의 농업이 천수(天水)농업임에 반하여 동양의 농업은 본질적으로 관개농업이라는 데 있다. 천수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동양의 농경-더욱이 도작(稻作)중심인-은 수행될 수가 없다.

왜! 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족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것도 여기에 상론할 ‘스페-스’가 없지만 동양농업에 있어서 개개(灌溉)<sup>72)</sup>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 조건은 농업생산을 기초조직으로 하는 과거의 동양사의 전(全) 사회-정치조직에 대해서까지 특이한 성격을 부흥하여 온 것이다. 유명한 동양학자 윌트포-겔 씨는 이러한 관개의 필지성(必至性)에서부터 동양사의 특이성을 구명(究明)하고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의 각 영역에 호(互)하는 동양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추구하였다. 유명한 ‘아세아적 생산양식’의 이론 혹은 ‘동양적 사회의 이론’이 곳 이것이다.

윌트·포-겔의 이론에 의하면 동양사는 서양사에 대비해서 독특한 발전법칙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양적인 발전법칙 혹은 ‘아세아적 생산양식’은 우리가 말하는 동아공영권에 속하는 모든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여 왔다. 그는 ‘지나’<sup>73)</sup>를 중심으로 동양학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그의 체계는 지나 뿐 아니라 내지, 조선, 만주, 인도 등 모든 영역에도 한길가치 관통된다는 것을 항상 역설하였다.

## 2. 동아권과 조선의 지위

이와 같이 농업의 경영규모에 있어서 또는 농업의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동양적인 것은 서양적인 것과 첨예하게 대립된다. 또 동아권에 있어서는 일본제국을 예외로 하고는 모두가 아직까지 농업사회인 만큼 이러한 농업조직에 있어서의 특이성은 정치, 문화, 사회 등 전 영역에 있어서의 전(全) 특이성을 결정하고 규제하여 온 것이다. 귀신의 개념이라던가 충효의 우위성이라든가 동양적인 불교와 유교의 이론이라던가 내지(乃至)는 동양인의 체위가 서양인에 비해서 왜소하다는 점이라던가 모든 동양적인 특이성이 결국 이 근본적 문제에 귀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령 생리적인 문제로 체위가 왜소하다는 특이성을 들어보자. 동양인이 왜 왜소하냐. 채식주의였기 때문이라고 의학자들은 말한다. 웨! 채식주의였느냐! 도작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

72) 관개(灌溉)의 오기임.

73) 중국.

다. 목축의 비중이 극히 적다는 동양적인 특이성도 결국 동양농업이 도작중심이라는 데 귀인된다. 그러면 다시 묻는다. 왜! 도작중심이었냐고. 그것은 동양적인 계절풍 '몬순'의 관계로부터 유래하지 안느냐, 그렇다면 결국, 체위의 동양적인 것까지도 이 '아세아'적 농업조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원인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진실로 동양적이란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여야 한다. 동양적인 것을 무시하고 세계적인 것에 일원화해 버리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동양적이 아닌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서 동양적인 것을 지칭하려는 기도도 맹랑한 일이다. 동양적이라는 것은 참말로 동양적이 되자면 동시에 과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정치에 있어서는 지나적인 제왕주의, 관인제도, 잔혹성의 전형인 '아세아적 수세관(收稅官)' 등 또 경제에 있어서는 역시 지나적인 토호와 열신(劣紳), 인도적인 고제대(高制貸)와 승려, 다시 문화부면(部面)에 있어서는 조선적인 무녀와 귀신 '맨다리즘'과 과거제, 또 생(生)의 원기와 표정을 일절 빼앗아 온 지방적 예의와 삼강오륜 등-이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동양적인 것이 근저에 있어서는 결국 이러한 본질적 기초생활의 특이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논술한다는 것은 본론이 과제 외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에 흥미를 갖는 독자에게는 전문서류의 숙독(熟讀)을 권할 뿐으로 단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여기에서 논의의 과제로 삼은 것은 동아공영권의 경제적 기초에 관해서였다. 그런데 이상의 논술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아공영권이란 개념에 포괄되는 모든 지역은 경제의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특이한- 다시 말하면 서양적인 것에 대비해서 특이성을 가진 일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농업적인 동아권은 다른 3개의 권역에 대립하여 독특한 한 단위를 자연적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상에 말해온 것은 서양적인 것에 대비한 동양적인 것의 특이성이지만 다시 동양-동아권을 내면적으로 구명해 볼 때에도 우리는 이 권역 내부가 남북 간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물론 이 남북 간의 차이란 것은 동양적인 것의 내부에 있어서의 유차(類差)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양적인 것에 대립해서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특이하다. 그러나 동양의 내부에서 본다면 남, 북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려 한다.

동양에 있어서의 혹은 동아권에 있어서의 조선의 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기 겸 이 문제를 잠깐 고려해 보기로 하자.

럿싱·뵉 교수는 지나의 농업지대를 구분하면서 소맥지대와 수도(水稻)지대로 양분한 후, 다시 이것을 8개의 농구(農區)로 세분하였다. 그런데 소맥지대와 수도지대와의 경계를 동 교수는 대체로 회하(淮河)에서 보았다. 회하라는 강은 유강성(游江省) 북방에서 흘러서 소강성(江蘇省)의 서북방으로 내려와 홍택호(洪澤湖)에 쏟아지는 대하(大河)이다. 대체로 이 회하의 북방이 소맥지대이고 이남이 수도지대라는 것이다.

유명한 아마타 모리타로(山田盛太郎) 씨는 최근 농림성의 촉탁으로 만지(滿支)의 경제, 사회를 연구하고 나서 북만(北滿)의 어떤 좌담회에 이르러 이 연구의 결과의 일단을 발표하였다. 씨의 견해에 의하여도 역시 회하가 경계적인 '라인'으로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씨에 의하면 회하 이남이 수

전(水田)경작의 지대이고 이북이 한지(旱地)경작의 지대라고 한다. 이 양 지대의 대척관계는 가령 역축(役蓄)의 대비에 있어서 일층 뚜렷하게 반영된다. 남방의 수전지대에서는 농역(農役)의 축력(蓄力)이 주로 우(牛) 혹은 수우(水牛)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의 한지경작지대에서는 말(馬)이 주요한 역할을 다한다. 또 물론 수전지대에서는 도작이 중심이지만 한지경작에서는 잡곡생산이 주요한 농산이 되어 있다. 『대지』에 나타나는 곡종(穀種)은 대개 잡곡으로 일관되어 있다. 『대지』의 무대는 틀림없이 이 한지지대 혹은 소맥지대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회하 이북이 한지경작-소맥전작(小麥畑作) 중심-마(馬)-황토의 계통인 반면 회하 이남이 수전-경작-수도-심-혹은 수우-계절풍의 계통에 속하는데 이러한 남북의 특이성은 남방에서는 남진하면 할수록 또 북에서는 북진하면 할수록 각각 농도를 가(加)하게 된다. 말(馬)의 계통은 중앙아시아까지 서진하고 또 몽고와 만주까지 포괄하여 북진하고 있지만 우의 계통은 즉, 수전경작의 계통은 더욱 더욱 남진하여 불인(佛印-프랑스령 인도네시아), 면전(緬甸-미얀마), 조왜(爪哇-자바) 등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 계통을 다시 '몬순'(계절풍)계통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 조선사회는 이 동아권의 양대 지대에 있어서 어느 편에 속하느냐.

수전지대 다시 말하면 『몬순』의 계통은 회하 이남으로부터 더욱 그의 특이성의 농도를 가하면서 남지나와 인도지나 등을 포괄하고 다시 대만을 휩쓸어 일대원형을 그리면서 내지를 거쳐 조선까지 도달한다. 이 대원형에 속하는 계통은 모두가 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지대이다.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인(漢人)농법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다. 남지나와 인도지나의 북부, 대만에서는 2기작을 하기로 유명하며 또 교지(交趾)지나, 태(泰) '빌바'의 3대 삼각주는 세계에 유명한 미(米)수출지이다. 내지가 수도 중심의 농업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테이며 더욱이 고지현(高知縣) 등지에서는 2기작까지 가능하다. 다시 계절풍의 계통은 조선까지 들어온다.

조선이 얼마큼 수전지대적이나 하는 문제를 고찰키 위해서는 조선내부의 농업지대를 구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론에서 이 문제를 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나의 연구에 의하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경기도, 충청남도의 6도가 대체로 보아 총경지면적의 50%이상을 점하는 수전면적을 갖고 있어 수도가 잡곡에 대하여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이 여섯 도를 수도지대에 포괄할 수가 있고 다시 충청북도와 황해, 강원도의 중부 3도에 있어서는 수전면적이 20%이상 50%이하를 점하여 잡곡과 도작이 비중적으로 거진 대항적이다. 그래서 이 지대를 전담혼타지대(田畚混墾地帶)라 하고 또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는 답(畓)이 아니라 전(田)이 훨씬 우세하여 답(畓)의 면적은 겨우 20%이내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전작(田作)지대라고 말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이론적 근거는 출처 『조선의 농업지대(朝鮮의 農業地帶)』에서 다시 참고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조선도 또한 회하이남에서 비롯하는 계절풍계통의 일대원형에 전반적으로 속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혹은 조선내에 있어서 답전혼타지대와 전작지대를 구분하는 경계선까지만을 계절풍계통에 속하도록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몰이지만 그러나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농업의 경종(耕種)조직이 전연 달라지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계절풍계통의 '라인'은 회하와 함께 압록강이라 하는 것이 보담 타당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에 관해서 압록강은 거진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압록강 이 편인 평안북도에서는 수도가 비록 비중은 적지만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 소(牛)가 유일한 역축으로 주시되며 중(中)의 계통에 속한다. '문순'의 계통은 기후관계로 보아서도 여기까지 와서 일단락을 짓는다.

그러나 압록강을 한 번 건너서 남만(南滿)에 이르면 여기에서는 수전의 비율이란 거진 문제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한지(旱地)경작이 우세가 된다. 또 역축의 관계로 보아도 소(牛)보다 말(馬)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마(馬)의 관계에 속함을 표시하고 있다. 남만에서 북만으로 또는 북지(北支)에로 간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농도를 가하여 조지(旱地)<sup>74)</sup>농경적인 지대적(地帶的) 성격을 더욱 심각하게 표시하게 된다. (끝)

〈출전 : 印貞植 「東亞圈의 經濟의 性格과 朝鮮의 地位」, 『三千里』 第13卷 1號, 1941년 1월, 66~72쪽〉

## 17. 장덕수(張德秀)

### 1) 장기건설의 길로 - 홍아청년의 의기를 묻다

1.

세계는 바야흐로 전례 없는 변환을 맞이하고 있다. 영국·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은 그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평화 기구를 세운 유럽의 재건을 볼 것이고, 동아(東亞)에서는 '지나정전(支那征戰)<sup>75)</sup>이 이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신질서 건설의 위업은 왕자오밍(汪兆銘) 정권이 출현하면서 점차 안정되려고 하고 있다. 20세기의 문명은 국제질서의 신조직을 향해 그 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현재 동서양의 파국은 그야말로 산고(産苦)라 할 수 있으리라.

2.

동아평화의 건설에는 적어도 두 가지 큰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동아인의 동아의 주장이다. 동아를 구미인의 지배에서 구원해 동아인의 손으로 이를 세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해방된 동아의 민족들 간에 하나의 협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하고 문화적으로 서로 유도계발(誘導啓發)하고 정치적으로 쟁의를 평화리에 해결하며, 제3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공동방어를 맡는 기구를 조직하는 일이다. 이 평화건설의 주장은 단순한 영토적 야심의 표현이 아닐뿐더러 경제적 침략주의의 구실도 아니다. 현대 문명인의 국제적 질서에 대한 요구이며, 기회균등의 외침이다. 실로 정의 관념이야말로 이 운동의 불기둥·구름기둥이다. 아니,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만약 다음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백만의 황사(皇師)<sup>76)</sup>는 허무하게 들판에서 싸우고, 백억의 국탕(國帑)<sup>77)</sup>도 소용

74) 한지(旱地)의 오기로 보임.

75) 중일전쟁.

76) 천황이 이끄는 군대.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황도(皇道)의 빛 또한 결국 소멸될 것이다.

### 3.

애당초 평화란 무엇일까? 단순한 질서의 유지만은 아니다. 만인이 자신의 직분에 따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은 대인들이 이미 주장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이 충분한 구비아말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인데, 한편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의 충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긴요한 일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할 때 예절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옛 사람들의 명언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의 실정을 되돌아 보건대, 구미의 나라들은 그 광대한 자원을 독점하고 문호를 닫아 동양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문패를 달고 있는 반면, 동양에 와서는 식민지·조차치, 혹은 치외법권·철도권·광산권 등 갖가지 특권과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를 과연 공존공영의 원리에 기초한 국제 정의가 시인하는 바일까? 나는 지금 당장 세계의 부유한 자원을 전적으로 개방하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실제 사정에 비추어 실행 불가능한 이상이다. 다만 동양에 한해서는 동양인의 생명권 확보와 평화 실현을 위해 구미인의 착취를 배제하고자 한다. 그 지배에서 자유와 해방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구미인들이 동양에 와서 적법한 통상(通商) 사업에 종사하거나 문화 사업에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권을 배제하고 동양인의 동양에서의 자유와 평등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방된 동양의 민족들 간에는 재래의 국가절대주의 내지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타파하고 하나의 새로운 협동체를 조직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협동조직의 정치적 기구를 극동 전체에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동아 신질서의 진정한 의의이자 또 나아가서는 이를 세계적 평화기구의 하나의 관련단체로 발전시키려는 점에 이 운동의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

### 4.

동아 신질서 건설의 의의는 이와 같이 광대하다. 따라서 그 장애 또한 지대함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장제스(蔣介石) 정권만이 제국의 상대가 아니다. 중국에 특권을 갖고 있는 모든 제3국과의 마찰을 어쩌면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진정 전례 없는 대업이자 또 지난한 사업인 이 비상시국에 대처해야 할 흥아(興亞) 청년들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할까?

청년은 모든 사회에서의 희망이고 모든 시대에서 꽃인데, 특히 흥아 백년의 대계를 진행하는 이 시국에 그러하다. 그들의 가슴에는 순결한 피가 흐리고 이기심과 욕심이 적다. 그들 몸에는 젊은 생명이 충만해 있다. 백년의 중임을 떠맡을 만한 힘을 갖고 있다. 그들은 과연 정의의 열의에 불타고 있는가? 진리의 자각을 토대로 넓고 인내하는(含弘持久) 정신을 무기로 삼아 일어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나는 이를 흥아의 청년에게 묻고 싶다.

〈출전 : 張德秀, 「長期建設の道へ—興亞青年の意氣を問ふ」, 『總動員』 1卷 7號, 1939년 7월, 52~54쪽〉

77) 나라의 재물.